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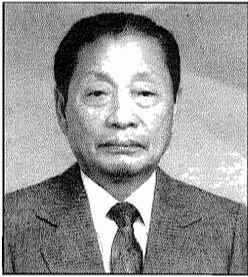
牛峯李氏大宗報

發行人兼編輯人：李丙疇
 主 幹：李丙泰
 發 行 處：牛峯李氏大宗會 02)753-6340~1
 서울시 중구 무교동 33-1 무교빌딩5층
 http://woobonglee2000.hihome.com
 印 刷 處：신오성기획인쇄사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가풍은 자손의 삶을 바르게 이끈다

병주 회장 총회에서 세보편찬에 적극참여 호소



병 주 회장

지난 해(1999년) 11월 7일 서울 중구 장교동 한화빌딩28층 회의실에서 병주 회장을 비롯한 병철 세보편찬위원장 및 각 임원및 일가 341명이 참석한 가운데 '99년도 대종회 총회가 개최되었다.

총회는 먼저 무학 도유사의 개회선언으로 시작되어 시조묘소 망배, 우봉인이여

영원하라 (시낭송·무원), 대종회장 인사, 감사보고 (병송), 세보 편찬위원장 인사(병철), 그리고 그동안 위선사업을 비롯한 奉祀, 學行, 族誼實踐 부문에 공로가 많은 일가에게 표창패를 수여했다.

이날 병주 회장은 식사를 통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많은 일가들이 만사를 제쳐놓고 총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한다'고 전제하고 '새 천년을 맞이하게 될 내년에는 세보 편찬이란 일대 대사업이 시작되는 해로써 2002년에는 체계 있고 현대 감각에 맞는 세보를 발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가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의식 없이는 계획대로 이

루어질 수 없다고'하고 '일가들의 관심과 성의 있는 수단작성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당부했다.

이날 표창수상 일가는 다음과 같다.

爲先 부문 丙俊(양주 주대면), 寅寧(서울 강서구 염창동), 昇茂(대전시 대덕구), 奉祀 부문 안병원(안9씨 부인 파주시 교하면), 族誼實踐 부문 舜寧(대종회 부회장 청주시 상당구), 健茂(청주시 상당구), 善慶(경주시 안강읍), 在寧(대구시 달성구), 杞春(경주시 안강읍), 學行 부문 東旭(부산시) 한편 이날 총회 찬조기금을 내주신 일가는 다음과 같다.(발찬기금 내역참조)

8월 30일 현재 수단신청 일가는 인원은 1만 7,970명,

-수단금은 89,850,000원, 세보청약은 3천5백80만원 1,775질-

지난 8월 30일, 세보편찬위원회가 발표한 상반기(8.30) 현재 수단금 납부현황은 총 신청 인원수는 1만 8천명으로 수단금은 89,850,000원에 달하고 있으며 신청된 세보 질 수는 1,775질로 세보 예약금은 3천5백50만원에 달하고 있다. 따라서 예상 일가수를 3만 여명으로 추산할 때 60%의 진척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그동안 세보편찬을 위한 찬조는 38명(문중별 포함)의 일가가 찬조금을 내주어 6천1백24만여원(찬조금 게재명단 참조)에 달했다. 한편 3월 16일 접수된 금액 중 7천만원과 4천만원을 한빛은행 태평로 지점에 1년간 정기예금으로 예입 조치하였다.



▲ '99대종회 총회에서 표창받는 일가들(사진·용무유사 제공)

세보편찬위원회 기획 재편성

병덕, 병무 부회장
편찬위원회 고문 추대패 전달



병 철 위원장

지난 3월 29일 대종회 사무실에서 상반기 세보편찬위원회가 열렸다. 이날 회의는 병철 위원장의 인사와 茂學(도유사) 편찬위원의 2000년도 실행예산안 및 수단진행 중간보고, 그리고 감수위원 위촉의 안건이 상정되어 논의되었다. 실행예산안에 대한 심의는 茂卓 위원이 2000년도 확정 기본예산안과의 비교 없이 2000년도 변경예산(안)만으로 설명한다면 이

해하기가 어렵고 절차상의 문제가 야기된다고 전제하고 세보편찬 기간의 청사진인 기본예산계획(안)을 제시한 후 비교해가면서 검토 되어 할 것이라고 말해 전 위원들이 이에 의견이 같이하여 다음 회의 때 다시 처리할 것을 의결하였다. 다만 이중 인건비에 대한 상근 위원의 보수를 3월 분부터 60만원씩 지불한다는 안 만 처리하였다. 교정담당 위원 위촉안건은 명칭부터 수정하자고 위원장을 비롯하여 각 위원이 이구동성으로 제의하여 전체의견에 따라 감수위원으로 개칭하도록 하고 감수위원 선임은 丙泰(대종보 주간) 위원을 우선 선임하고 병태 위원이 2~3명 정도로 선발한 후 위원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안으로 가결하였다. 한편 丙天 위원은 지난해

('99) 12월 29일 개최된 편찬위원회에서 기획팀의 간사장 임명 후 운영이 어렵게 된데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이 문제를 명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제의하자, 위원장과 각 분과 위원장이 별도로 논의 끝에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일단 丙泰 감수위원이 겸임하도록 하자는 결론을 내려 이를 거수 표결에 부친 결과 위원들은 만장일치로 이를 가결하였다. 따라서 丙泰 위원이 감수위원의 추천과 기획팀운영의 책임을 겸임하게 되었다. 이어 그 동안 대종회 발전기금 모금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丙德, 秉茂 대종회 부회장에 세보 편찬위원회 고문으로 추대하는 기념패를 병태, 무학(도유사), 철형 위원이 전달하였다.

이날 참석한 편찬위원은 다음과 같다.

丙七(위원장), 丙吉(제1분과 위원장), 萬寧(제2분과 위원장), 丙泰, 丙天, 丙國, 丙珣, 丙秀, 寅寧, 健寧, 喆衡, 茂學, 寅茂, 寅茂, 茂卓, 龍茂는 하루를 보냈다.

● 대종회 참석한 일가들이 발전기금 내 주신 내역 ●

가평 화수회	100,000원
안강읍 두유2리 화수회	100,000원
迎慕堂(옥천 이원면)	100,000원
萬用(지평공 문중)	50,000원
德用(지평공 문중)	100,000원
丙鎬(중무위원)	100,000원
丙國(중무위원)	100,000원
學九(중무위원)	100,000원
丙允(대사간문중 광명시)	300,000원
世寧(문경 가은면)	200,000원
海寧(자양동)	50,000원
昇寧(중무위원)	100,000원
根寧(중무위원)	100,000원
昌茂(청장년회장)	200,000원
秉茂(대종회부회장)	1,000,000원
茂松(사직공 문중 가수)	100,000원
茂錫(장계유사)	100,000원
茂學(도유사)	100,000원
安九(파주 교하 동패리)	100,000원
丙吉(수원시 고등동)	30,000원
丙應(중무위원)	1,000,000원
계	4,130,000원

● 논단

가승(家乘)의 이해와 긍정적 평가

-세보편찬 업무의 수단을 작성하면서-

작년 10월부터 시작된 세보편찬 업무의 진척은 8월 말 현재 수단 제출 일가가 18,000명여에 달한다. 총 일가를 3만여 명으로 추산해볼 때 거의 60%의 진척을 보이고 있어 이는 일가들의 성의가 대단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중 세보편찬을 위해 성금을 내준 일가는 8월 말 현재 38명이나 되어 이 기금만도 6천124만원에 달한다. 따라서 편찬위원회에서는 수단금 8,985만원을 합친 금액 중에서 1억1천만 원을 1년 계약으로 은행에 정기 예금 조로 예입하였다. 이러한 추세라면 편찬위원회가 계획한 그대로 무난히 기일내에 발간할 수 있다고 전망된다.

여기서 수단을 작성하면서 몇 가지 문제들이 돌출되고 있어 일가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하고자 한다. 그동안 접수된 수단을 보면 어느 문중에서는 문중별로 취합하여 보내는 성의도 보여주고 있지만, 대부분 개별적으로 제출되는 경우에는 수단용지에 '일러두기'를 읽지 않고 작성되어 편찬위원들이 원고 작성시 재확인해야 하는 일이 대부분이다. 또 결혼 후에 분가된 호적상 제적된 가족에 대하여

서는 등재하지 않는 예가 있어 신중히 검토하지 않고서는 누락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들은 수단을 작성하는 호주가 신중하게 처리해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편찬위원회에서는 누락되거나 세보에 잘못 기재된 계대에 대하여 바르게 잡고 새롭게 정리하는 작업이다. 이중 이미 발간된 세보에 참여하지 않은 문중이 있는가하면 일방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있다가 참여하게 된 문중, 또 참여 계대가 불확실하다고 문중에서 거부하는 일이 있는가 하면, 계대가 모호하여 심층분석이 필요한 일기도 있다.

더욱이 1927년도 편찬한 세보나 1974년도 판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가승까지 부인하는 예도 있다. 물론,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서는 편찬위원회에서 신중히 연구 검토하여 합리적으로 처리되어야 할 문제도 있어 고증을 토대로 깊이 있고 신중히 처리해야 할 과제로서 소홀히 할 수 없다고 본다.

우리에게는 온갖 시련을 겪은 현대사에서 살아오면서 일제 학정에 못이겨 독립운동 가족으로 숨어 살아온 쓰라린 과거가 있었는가 하면, 또 선대의 정치적 잘못된 처신으로 몇몇하게 행세할 수 없었던 일,

그리고 생활터전을 찾아 고향을 떠나 객지에서 살다보면 가문이나 문중의 내력을 알아볼 겨를이 없었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옛날부터 우리민족은 자손으로써 조상을 섬기려는 마음가짐을 예(禮)를 근본으로 여기고 려사(闡祀)함을 가장 수치로 여겼고 의식에는 정한수를 떠놓고 서라도 조상께 예의를 표시하며 살아왔던 것이다. 우리네는 어떤 시련을 당하더라도 또는 피난길에도 가승(家乘)을 품안에 소중히 간직하여 온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렇게 가승의 가치는 그가문의 전통을 뜻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적어도 한 문중의 계대는 오랜 세월을 두고 형성되었다는 점을 먼저 생각하고 오랜 세월동안 간직하여 온 가승자료 등 문헌도 긍정적으로 받아서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세보 편찬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가능한 한 고증 문헌을 찾아 검토를 할 것이다. 따라서 일가들도 세보의 편찬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수단작성에 임하여 내 문중의 기록인 동시에 역사임을 인식하여 성의 있는 수단 작성에 참가해 주시기 바란다.

(글·병태 주간)

문경 穎樂亭(영락정) 복원 공사 착공

총 공사비 4천 1백만원 들여 10월에 준공 예정

우봉이씨 문중 유적으로 유일하게 남은 문경시 가운데 성유리산에 있는 영락정의 보존상태가 붕괴될 조짐이 있어 금년초 착공식을 갖고 문경중추회(회장: 世寧)에서는 복원 모금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복원에 소요되는 총예산은 4천100만 원으로 복원 비 3천만 원, 추모금(追慕亭 三州李氏楸齋) 모수비 800만원, 담장 보수비 300만원의 경비가 소요된다. 그동안 영락정 복원사업 추진위원회를 조직하고 모금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추진위원회에서는 이미 만녕((주)광일식품사장) 1천만원과 병무((주)아세아시멘트 회장) 1천만원 등을 모금하여 목표액의 70%의 실적을 올렸다.

그런데 추진위원회의 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그 문 인녕 세녕 병무 무근 위 원 장 만녕, 부위원장 은무, 창무, 영범, 범준, 실무위원 동녕(재무) 창녕(기획/홍보) 옥무(토목/건축) 문경지역 작전문중 동녕, 창녕, 준무, 덕무, 흠무, 명준(서울), 창무(서울), 상무(서울), 강홍(서울) 석교문중 영무, 정일, 강원, 범재(서울), 범일(서울), 원무(서울 파레스호텔) 성유문중 재녕, 풍녕, 중녕, 명녕, 상녕, 정무, 옥무(서울), 복녕(서울), 은무(서울 갑사원), 병무, 무현.

그런데 그 동안 찬조금을 내준 일가는 다음과 같다.
문경 중중 300만원, 작천 소중중 100만원, 성유/성저 소중중 100만원,

세녕(성유2리) 100만원, 흠무(왕릉1리) 100만원, 덕무(작천1리) 20만원, 풍녕(성유2리) 50만원, 정무(성저1리) 30만원, 상녕(성저2리) 50만원, 동녕(왕릉1리) 30만원, 만녕(광일식품) 1천만원, 병무(아세아시멘트) 1천만원, 寅寧(참판공문중 세보편찬위원) 20만원

한편 개축을 위한 공사도 1907년 개축당시 영락정의 역사를 파악할 수 있는 상량문이 발견되어 영락정의 당시 중요성과 가치를 파악할 수 있는 문헌으로 보관하게 되었다. 그런데 영락정은 退隱(퇴은·瑞)공의 配位(배위 商山 金氏)의 묘소 재실로 문경 가운데면 성유리 茅亭山(모정산)아래 있다. 430년 전 초가 정자를 짓고 자손들이 추모하여 오다가 11세(寅九)에 들어와서 1902년에 재건되었다. (대중보 16호 3면 참조)

젊어서 꽃나무들 보니/기쁘고 즐겁기 그지 없네/지나온 여러 해를 돌아보니/감회가 새롭구나/선조의 유덕과 뜻을 본받아 정성을 바치니/아름다운 소나무 한 그루 문가에 바로 심고/가냘픈 작은 꽃과 우거진 숲이 마당에 차 있다./후세 사람들 다시 책을 읽거든/그 이름 영원하게 남겨 주소서.

인구 선조가 지으신 穎樂亭記에 있는 시이다. 이번 발견된 상량문은 崇禎 五歲 次丁未 二月二十日 寅九 謹撰, 成九 萬用 공 아드님) 謹書로 기록되어 있다.

대중회 자산관리 업적 크게 남기고 茂錫 장재유사 사임



茂錫 前 장재유사

지난 2월 15일, 대중회 장재유사로 일해왔던 茂錫(新韓會計法人 稅務士 理事) 씨가 업적을 크게 남기고 이임하였다. 1991년 10월에 대중회 장재유사로 취임한 이래 9년간 대중회의 宗財 및 회계관리에 헌신적으

로 업무를 수행해 왔고, 특히 재직시 대중회가 발간한 책자 관리는 물론, 판매 수입처리에 어려운 업무까지 도맡아 처리해 왔으며 부동산 관리업무를 차질 없게 수행하여 세금 감면을 하는 등 낭비 없는 운영에 업적을 남겼다.

따라서 그간의 업적을 고려 행운의 열쇠를 증명하기로 결정하였다. 한편 장재유사 후임에는 대중회 병순 감사가, 신입 감사에는 태녕 중무위원을 선임하였다.

牛峯李氏 世譜編纂 案内

우봉이씨 세보를 발간하기 위하여 국내외에 거주하는 일가들의 수단을 2000년 6월 30일까지 접수하였으나 아직 제출하지 못한 일가가 있어 재 통보합니다.

〈 다음 〉

1. 수단 제출범위: 우봉 이씨 각파 일가 전원
2. 제출 마감일: 2000년 12월 30일
3. 수단금: 생존자 기준 일인당 5,000원(누락 계대의 추가 등재는 별도)
4. 세보예약금: 20,000원(질당)

5. 수단금 납입방법: 우봉 이씨 편찬위원회 GIRO 7653049(각 문중별 납입시에도 반드시 지정된 지로용지로 입금 바랍니다.)
2000년 8월 30일

우봉 이씨 세보편찬위원회
위원장 李丙七

〈연락처〉

☎ 02) 753-6340-1 FAX:753-6342
주소: 우편번호 110-604 서울시 중구 무교동 33-1(무교빌딩 5층)
서울 광화문우체국 사서함 438(K.P.O BOX 438 SEOUL, KOREA)

세보발간에 200만원 찬조한 3형제

콘택트렌즈와 라식수술의 원조이론
 茂杰·茂林·茂一 3형제



무림 사장

서울종로 2가 파고다 공
 원 맞은편에 자리잡고 있는
 밝은 안과는 문종일가인 무
 림씨가 경영하는 라식
 (LASIK)수술전문병원으로
 그 명성이 높다.
 문경시 산북면 대하리가
 고향인 大寧(작고)씨의 5남

6녀 중 무결(66세), 무림
 (61세), 무일(52세) 3형제
 는 그동안 콘택트렌즈를 주
 로 취급하는 전통과 신용을
 자랑으로하는 유명 안과이
 다.

그런데 장남인 무결씨는
 콘택트 렌즈(베스콘(주))
 제작회사를 경영하고 있으
 며, 차남 무림씨는 서울시
 종로2가에서, 3남 무일씨
 는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밝
 은 안과 체인으로 콘택트렌
 즈의 국내 원조로서 활약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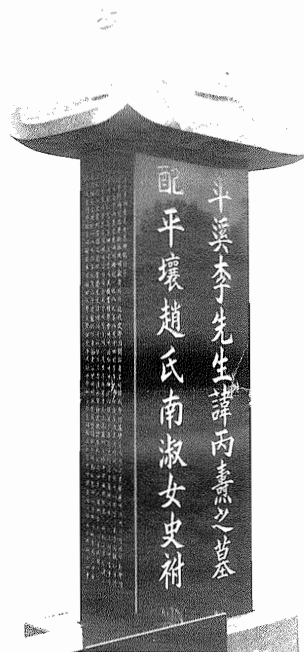
왔다. 최근에는 안과 의료
 분야에서 각광받고 있는 라
 식수술(시력교정수술)전문
 안과 병원으로 성업중에 있
 다. 이 3형제는 지난 7월 6
 일 대종회에 방문하여 세보
 편찬에 써 달라고 200만원
 을 전달하면서 방문하는 일
 가들에게는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 신축전 영락정모습



▲ 증건중인 영락정 전경(문경)



▲ 1989년 타계한 한국史學界의 태두였
 던 고 斗溪 丙齋박사의 비석이 10년
 만인 올 가을, 흥인 유택에 세워질 예
 정이다. 그런데 비문은 학술원회원이
 韓汝勛 서울대 명예교수가 짓고 글씨
 는 서예가이며 중집인 守寧씨가 썼다.

● 세보발전기금을 내주신 분 ●

- 萬寧(부회장 서울 동작구 대방동) 20,000,000원
- 秉茂(부회장 서울 성북구 성북2동) 11,000,000원
- 俊九(대종회 회장 清白吏門中회장) 5,000,000원
- 丙德(부회장 서울 강남구 대치동) 5,000,000원
- 丙鎬(종무위원 서울 성동구 금호1가) 1,550,000원
- 勳九(종무위원 경기도 용인시) 1,000,000원
- 丙七(부회장 서울 강남구 삼성APT) 1,000,000원
- 丙錫(김포 의림공문중 서울 송파구) 1,000,000원
- 舜寧(부회장 청주 평화아파트) 1,000,000원
- 淸寧(부회장 서울 강북구 수유2동) 1,000,000원
- 永範(부회장 서울 송파구 오금동) 1,000,000원
- 學九(종무위원 서울 양천구 목4동) 600,000원
- 丙朝(종무위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600,000원
- 丙國(종무위원 성남시 분당구 효자촌) 600,000원
- 泰寧(감사 서울 동작구 상도5동) 600,000원
- 根寧(종무위원 서울 안양시 안양7동) 600,000원
- 根衡(종무위원 서울 강남구 논현동) 600,000원
- 昌茂(종무위원 서울 송파구 문정동) 1,600,000원
- 基茂(종무위원 서울 동작구 사당동) 600,000원
- 範泰(종무위원 서울 송파구 방이동) 600,000원
- 丙吉(부회장 서울 마포구 도화동) 500,000원
- 海寧(서울 광진구 자양1동) 500,000원
- 丙龍(종무위원 서울 강동구 천호동) 300,000원
- 寅茂(세보편찬위원 교양시 일산 장항동) 200,000원
- 始寧(충남 태안군 원북면) 300,000원
- 茂榮(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엄소리) 300,000원
- 智衡(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엄소리) 200,000원
- 瑑茂(경남 함안군 가야읍 말산리) 200,000원
- 敏寧(용인시 역북동) 100,000원
- 雲九(종무위원) 300,000원
- 成冠(경주시 안강읍) 200,000원
- 吉雄(종무위원) 600,000원
- 璉九(감찰공 문중 대전시 유선동) 300,000원
- 大寧(서울 강동구 광장동 일신 APT) 200,000원
- 茂林(서울 압구정동 한양 APT) 2,000,000원
- 監察公門中 (농재공문중) 10,000,000원(대종회 발전기금)
- 丙昌(서울 강남구 논현동) 1,000,000원(대종회 발전기금)
- 延白(부사공 문중) 500,000원(대종회 발전기금)

도암 이재선생 원저
국역 사려편람

값 20,000원

오고 있는 살아있는 의례에 관한 책
 이백팔십여년의 전통 그대로 지켜
 도암선조가 재편찬한 『四禮便覽』은
 朱子家禮를 우리 실정에 맞도록

우봉 이씨 선대와 후대의 문헌을 위주로
 집안 내력을 밝힌 필수도서이다.

**牛峯李氏
 門中要鑑**

값 20,000원

화친공은 陶庵선생의 직손으로 祖考의 학풍을 이
 어 經學과 禮學의 名家로 알려진 분이다.
 공은 일생동안 벼슬보다 학문에 더 힘써 仁을 으뜸
 으로 삼았으며 관직에 있을 때도 善政을 베풀어 그
 숭한 일화를 남겨 오늘날까지도 전해지고 있다.

李采著
華泉集 乾坤

값 45,000원

주문처
 (02) 753-6340-1
 FAX (02) 753-6342
 서울 중구 무교동 우봉이씨 대종회
 장재유사 李丙珣

宗中(문중) 어른을 모시고 우리 牛峯 李門(우봉 이문) 청장년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庚辰年(경진년) 새해에 더욱 건강하시고 萬事(만사)가 형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우봉 이씨 문중이 규모로는 그리 크지 않지만 名門(명문)을 이루면서 忠孝(충효)와 德行(덕행)이 지극하셨던 훌륭한 선조들이 많이 계셨다는 것과 이러한 문중의 기풍과 전통이 현재까지 이어오는데 대해서 늘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여유없이 쫓기는 생활을 하면서 가까운 친척 어른들도 자주 만나 뵙지 못하다가 여러분을 뵙게 되니 한편 송구스럽고 또한 기회가 매우 소중하게 생각됩니다. 저는 우봉 이문 8세인 斗峯公(두봉공)의 장자 감찰공파에 속하며 시조 文景公(문경공 公靖)의 27세손입니다. 제가 훌륭한 여러분에게 좋은 德談(덕담)을 드리기에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만은 가까운 친척이 함께 만나서 인사를 드리고 서로 정다운 이야기를 나누는 기회로 생각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밀레니엄 새천년의 의미

올해는 2000년이 되는 해이다 보니 우리 모두가 새 밀레니엄/새 천년이라고 해서 큰 의미를 부여하려고 합니다. 사실 2000년에 진입하기까지는 지난 100년, 특히 10년간은 소위 文明史의(명명사적) 전 사회가 불리울 만큼 정치와 사회 및 경제와 기술 등 모든 분야에서 엄청난 변화가 빠르게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전환점에서 앞으로 펼쳐질 21세기의 모습을 예측하고 우리의 방향과 각오를 다지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21세기는 흔히 정보사회화, 지식기반 사회화, 무한경쟁 심화, 삶의 질 육구의 고압화와 다양화를 특징으로 하는 도전의 세기가 된다고 합니다.

정보사회화가 진행되면서 정부와 기업과 개인 등 모든 경제적 주체의 생활방식, 거래관행, 사회 시스템이 크게 변화되어서 미래에는 손목시계형 컴퓨터를 통해 걸어다니면서 인터넷에

접속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고 합니다.

이제 세계는 새 천년의 地平(지평)에서 산업사회의 패러다임을 접고 정보와 지식이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이 되는 '지식기반사회'로의 대전환이 진행되고 있어서 노동과 자본의 투입량보다는 지식과 정보의 축적과 효과적인 활용이 경제발전의 핵심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OECD 국가들의 경우에 1997년에 지식기반 산업이 총 GDP의 평균 34%를 차지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도 창립된지 몇 년 안 되는 벤처회사의 잇가 총액이 우리 나라 10대 제조회사의 그것과 맞먹게 되었다는 것도 우연은 아닐 것입니다.

창의적 지식 교육의 다양화

21세기에는 창의력을 활용한 틈새시장의 개척과 新種(신종) 서비스 이미지 산업 등 비 서브문화, 소프트웨어 부문 경제활동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산업사회의 전형적인 교육제도가 붕괴되고 사회의 요구하는 창의적 능력배양을 위한 새로운 지식교육시스템도 다양하게 발전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최근 스탠포드 연구소의 커티스칼 소장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터넷/웹, 반도체와 같은 첨단기술은 제조업, 서비스업과 사회전반을 새로운 형태로 변모시키고 있고 21세기에는 단순한 財務(재무)나 마케팅 전문가보다는 급변하는 기술의 변화추세를 읽어내고 이에 앞질러서 기업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가는 최고경영자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우리 나라의 대표적 기업인 삼성전자의 윤종용 대표이사 부회장, 이윤우 사장, 진대제 사장, 황창규 부사장 등의 최고 경영진 모두가 공과대학 졸업자인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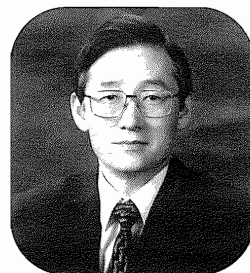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 재고

21세기에는 또한 국제경쟁이 심화되어서 국가간의 경계가 없는 무한경쟁의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세계각국은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즉 정부와 민간간의 긴밀한 협력과 미래지향적인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고 기술 혁신과 국가와 국가간, 외

21세기의 社會와 教育



長 茂 박사
서울대학교 공과대 학장

초요약력: 1945년생 (학력)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기계공학 과 학사('67), 미국 아이오와 주립대학교 공학박사('75),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교수('76~현재) (경력) 미국 M.I.T. 연구원('82~'83), 서울대 정밀기계설계 공동연구소장('93~'97), 한국 정밀공학회장('96~'99),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장('97~현재), 전국 공과대학장 협의회장('98~현재), 국가과학기술 자문위원회 위원('98~'99), 교육부 교육정책심의회 대학교육분과 위원장('98~현재), 산업자원부 산업기술평가원 이사장('99~현재), 과학기술부 과학기술 운영위원회 위원('99~현재), 과학기술정책 협의회 위원('2000~현재), 대한기계학회장('2000~현재), 과학기술 한림원 정회원, 한국공학 한림원 정회원, 국제생산 공학원(CIRP) 국가대표 총신회원, Journal of Manufacturing Systems 의 Associate Editor (상훈) 한국기계학회 학술상 수상('85), 한국자동차학회 학술상 수상('96)

국기업간의 전략적 제휴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21세기에는 또한 삶의 질의 고급화와 다양화가 이루어져서 2000년 현재는 노령인구(65세 이상)가 7%이나 20년 후에는 14%가 되는 등 본격적인 고령화사회로 진입할 것입니다. 세계적인 경제학자인 드루크 계수는 91세의 노령임에도 불구하고 활발한 연구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 환경오염 억제 노력이 증대되고, 생명과학, 新素材(신소재), 자동화기술 등이 발달하면서 인간의 衣食住(의식주) 생활도 크게 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외환위기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부존자원도 부족하지만 우리 국민의 뜨거운 教育熱(교육열), 우수한 두뇌와 재능이 있기 때문에 자원이나 자원보다도 지식과 능력이 중시되는 21세기 지식기반사회는 오히려 우리에게 크게 도약할 수 있는 도전정신과 희망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위스의 IMD가 조사한 우리나라의 경쟁력은 1998년 기준 46개국 중 22위였고 작년에는 더 떨어졌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의 경쟁력은 거의 최하위로 발표되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사회와 기업에서 요구하는 資質(자질), 예컨대 실무능력이라든지, 영어 등의 의사소통 능력, 종합적/창의적 문제해결능력, 팀워크, 엔터프라이즈/기업가정신 등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지난 80년대에 제조업 경쟁력이 없어서 매우 어려운 시기를 겪었지만 대학의 경쟁력이 세계 최고였기 때문에 오늘날 최강의 경제대국으로 재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미국의 미시간 대학교의 듀더스타드 명예총장은 미국의 대학, 특히 연구중심의 명문대학들은 왕관의 박힌 보석과 같이 국민에게 특성화되어 있고, 교육시스템이 경직되지 않고 유연성 있게 운영되어 있고 특히 지식기반 사회에서 국가경쟁력의 중심이 되는 대학원 중심대학/연구중심대학이 세계 최고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서울대학교도 입시제도를 개혁하여 교교장 추천 입학

제, 수학능력시험 위주의 특차, 학교성적/논술/수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공과대학도 2002년부터 모든 학과를 단일모집 단위로 선발해서 교육을 한 후 2학년/3학년에 전공을 자유롭게 택하게 하고 전과도 대폭 허용하는 학생 중심의 교육을 하게 될 것입니다. 수천 종에 불과하던 직종이 현재는 40만종 이상으로 증가하였고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을 감안하면 전공은 다양하게 자율적으로 추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의 대학생들이 교육목표나 교과 과정이나 지식적 특성에서 맞는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다양하게 특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미국의 공과대학은 교육목표가 각기 다르다고 합니다. 스탠포드 대학은 '활용성'에 목표를 두어 산업체 등에 진출할 인재들을 배출하는데 힘을 쏟고 있고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은 '창의성'에 목표를 두고 학자나 연구자를 많이 배출하였고 미시간 기술대학은 '현장 엔지니어 배출'을 각기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창의정신, 실용화정신 기업가 정신 고취

또한 오늘날과 같이 급변하는 지식중심 사회에서는 한번의 대학교육으로는 지속적으로 유능한 직장인이 되기 어려우므로 평생교육도 이수해야 하고 교과과정과 교육방식도 크게 바뀌게 될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공과대학도 학생들에게 창의정신/실용화정신/기업가정신을 고취시키는 교육을 하고 있고 신기술창업 네트워크센터를 설립해서 80여 개의 벤처회사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21세기의 핵심은 역시 공존/공영/화합/복지/환경보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화/국제화는 세계속에서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과 친척과 이웃과 국가와 세계 모두를 아끼고 염려하는 정신에서부터 시작 된다고 볼 때 이것은 우리의 孝忠思想(효충사상)과

새천년 신년하례 대성황

병호(원자 핵 공학) 병무(아세아 그룹 회장) 장무(서울대공과대학장)문중 석학들 강연 등으로 다채롭게 청장년회에서 주관하여 진행

지난 1월 16일 2000년 새해를 맞이하여 이문의 무궁한 번창을 기원하며 일가간의 상호친목을 증진하기 위한 신년하례회(新年賀禮會)가 청장년회(회장:昌茂)주최로 개막되었다.

이날 신년 하례회는 병주 회장을 비롯하여 70여명의 일가가 참석하여 대성황을 이루었는데 먼저 신년사와 창무 청장년회장의 인사에 이어 병호(炳昊 부사공문중

한국과학기술원 부원장) 박사의 우봉면에 대한 내력과 새천년에 지녀야 할 덕목(6쪽 참조), 병무(秉茂 아세아 시멘트공업(주)회장) 회장의 경제·사회발전의 정보화와 페레타임시대(5쪽 참조), 그리고 장무(長茂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장) 박사의 21세기의 사회와 교육(4쪽 참조)에 대한 강연이 있었다.



▲ 신년하례회(1. 16)에 참석한 일가들 /사진 용무유사 제공



▲ 신년하례회 연회를 같이 한 회장단 왼쪽부터 (병호·만병·순병·병철·병덕) /사진 용무유사 제공

21세기의 사회와 교육

4면에 이어서

도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같이 고통과 기쁨을 나누고 서로가 화합하고 협조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감성적인 면을 억제하고 理性的(이성적)論理的(논리적)이 되도록 노력하고 또 자원봉사 정신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문중은 국가에 충성하면서 부모에게 대한 효심

이 지극하고 형제자매간에 우의가 돈독하며, 이웃과 동료와 화합할 줄 아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우리 牛峯李門 선조님들의 家統(가통)을 더욱 빛나게 할 수 있다고 믿으면서 다시 한번 새천년에 여러분 모두가 더욱 건강하시고 많은 발전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제·사회발전의 정보화와 페레타임 시대

21세기는 창의시대에도 근면과 정직의 덕목 가치는 필수

秉茂
아세아제지(주)회장

중요역력 1941. 9. 8생(학력)연세대학교 상경대학 경영학과,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석사), 한국양회공업 협회 회장('92~'94), 아세아시멘트공업(주)회장('92~ 현재), 성북문화원 고문('96~현재), 기공전자 회장('96~현재), 대풍정밀 회장('96~현재), 문경학원 이사장('97~현재), 아세아그룹회장('97~현재), 아세아제지(주) 회장('89~현재), 제16대 연세대학교 상경대학 동창회장('99~현재)(상훈) 조세의 날 대통령표창('94), 자랑스런 연세상경인상('94), 자랑스런 연세경영인상('90), 조세의 날 동탑산업훈장('88)



秉茂 회장

2000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세월이란 우리 모두가 느끼듯이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아주 천천히, 즐거운 때는 아주 빠르게 다가왔다 떠나가는 일상생활들이 교차되면서 어느덧 한 세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새 천년과 새로운 새해를 맞이한다고 온갖 행사를 준비하고 중계방송을 하면서 축제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산천은 말이 없이 묵묵히 있고 한 해가 저물어가고 새로운 아침이 떠오르는 것은 과거와 같지만 웬지 21세기는 우리들에게 무척 많은 변화와 충격을 줄 것 같아 감회와 설렘이 예년과는 다를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지금까지 인류역사의 발전이 산업사회에서 정보화, 디지털시대로 변화되면서 새

로운 경제사회의 페레타임으로 바뀐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페레타임의 전환기에는 과거의 생각과 질서가 붕괴되고 새로운 질서가 태동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경쟁구도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이것이 우리들에게는 엄청난 도전인 동시에 기회이기도 합니다.

요즘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듯이 무서운 N세대들이 심지어 대학을 포기하고 벤처회사를 설립하여 벼락부자들이 많이 생겨나고, 우리의 코스닥시장은 무서울 정도로 주가가 폭등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새로운 천년은 자본이나 자원이 아닌 지식이나 정보의 질과 양이 경쟁력을 좌우하기 때문에 저 자신도 벌써 변화에 적응을 못하고 뒤떨어지는 느낌에 무척 소외감과 초조함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엄청난 정신적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으며, 경쟁력과 수익성이 없는 국가경쟁력이나 기업경쟁력이 얼마나 무섭다는 사실을 너무나 뼈저리게 느낀 날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암담했던 1998년에 비하면 우리의 경제가 위기에서 벗어난 것 같아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 들인 바와

같이 새로운 밀레니엄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개성과 창의성이 존중되고 다양성의 가치를 인정하는 사회문화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문명의 발전이 우리들에게 닥쳐올 문제점도 깊이 생각하여야 합니다.

첫째는 지난 백년사이에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온 인류의 물질문명은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풍요와 안락을 가져다주었지만 세계의 대부분은 문명의 혜택을 위함해 인간의 심성을 파괴하고 자연환경이 파괴되면서 그 부작용도 커지고 있습니다.

둘째는 21세기는 변화와 발전속도가 빠르고 창의력이 뒷받침이 아니 되는 사 고로서는 자연히 뒤로 처질 수밖에 없으므로 상대적 빈곤을 느끼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 질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근면과 성실, 절약과 절제, 정직과 같은 덕목과 가치를 잊지 아니 하도록 배움에 대한 열의와 호기심, 열린 마음과 자세, 그리고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을 갖고 인간의 심성을 망각하지 않는 겸허한 자세를 견지하면서 새로운 천년을 살아 가야할 것입니다.

만녕 대종회 고문 별세

옥천 이원면 永慕堂건립 등 많은 업적 남겨



故 藹寧 고문

문중 일이라면 만사를 제치고 일가들의 단합과 상부상조 실천에 출선수범하던 만

녕 대종회 고문이 11월 2일 대전 중구 오류동 자택에서 90세를 1기로 별세하였다.

고인은 1909년 2월 12일 옥천군 이원면 개심리에서 丙祿(병위)공과 밀양 朴貞洪(박정홍) 여사 사이에서 5남매중 장남으로 태어나, 엄한 가정에서 한학을 수업한 후 향리에서 뜻있는 청년들과 같이 한일합방을 반대하는 독립운동에 가담하기도하였다.

8·15 광복후에는 대전을 중심으로 종친을 모아 대전

우봉 이씨 회소회를 창립하고 초대회장에 선임되어 종친간의 우의를 다졌다. 특히 1953년, 6·25전쟁으로 세심계(洗心齋)공을 모셔오던 사당이 소실되어 조상을 모시지 못하게 된 것을 안타깝게 여겨오다가 문중 일가들을 중심으로 복원할 것을 호소하여 1994년 7월에 영모당을 건립하게 되었다. 또한 최초에는 영모당 도로변에 표석을 건립하고 증조부 묘소가 허술하자 벌초를 하고 제석을 세웠다. 고인은 창녕 조확남(1973. 4. 2 사망) 여사 사이에 東茂(동무) 등 1남 3녀를 두고 있다.

시작하는 말

[筆者註] 지난 1999년 9월 어느 날, 한국 과학기술원 서울 캠퍼스에서 李寅茂(이인무) 교수가 “교수님 본관이 어디세요?” 하고 묻기에 나는 “우봉 이씨지!” 하였던니 대부를 찾았다며 좋아하면서 全義(전의)에 계신 그의 아버지(界宰)에게 알렸다. 승녕씨는 즉시 서울 무교동에 있는 종친회에 연락해서 대종회와 연락이 닿아 나는 설달그믐날에야 찾아가서 인사하고 우봉 이씨 종손 집안에서 남한에서는 세보상으로 가장 가까운 장손임을 알게 되었다.

그 후 우봉 이씨 본향인 우봉에서 사셨으니 2000년 1월16일에 신년하례회에서 종친회 여러분들에게 그 곳의 지리를 소상하게 설명해 달라는 도유사의 부탁을 받아 OHP 6장에 지도를 곁들여 설명을 했더니 남북의 길이 열리면 찾아가 보겠다는 분들이 많아서 이 글을 대종보에 게재하게 되었다.

고우봉현(縣)을 찾아가는 길은 두 가지로, 하나는 개성에서 京義線(경의선)을 따라 철도편으로 가던지 陸路(육로)로 가는 길이다. 일단 개성에서 金川(금춘)까지 40km 가서 금춘에서 동북쪽으로 市邊里(시변리)행 버스를 타든지, 승용차로 약 30분 정도 가면 우봉면 사무소 소재지인 松亭里(송정리)에 닿는다. 이 근처에 古牛峯(고우봉)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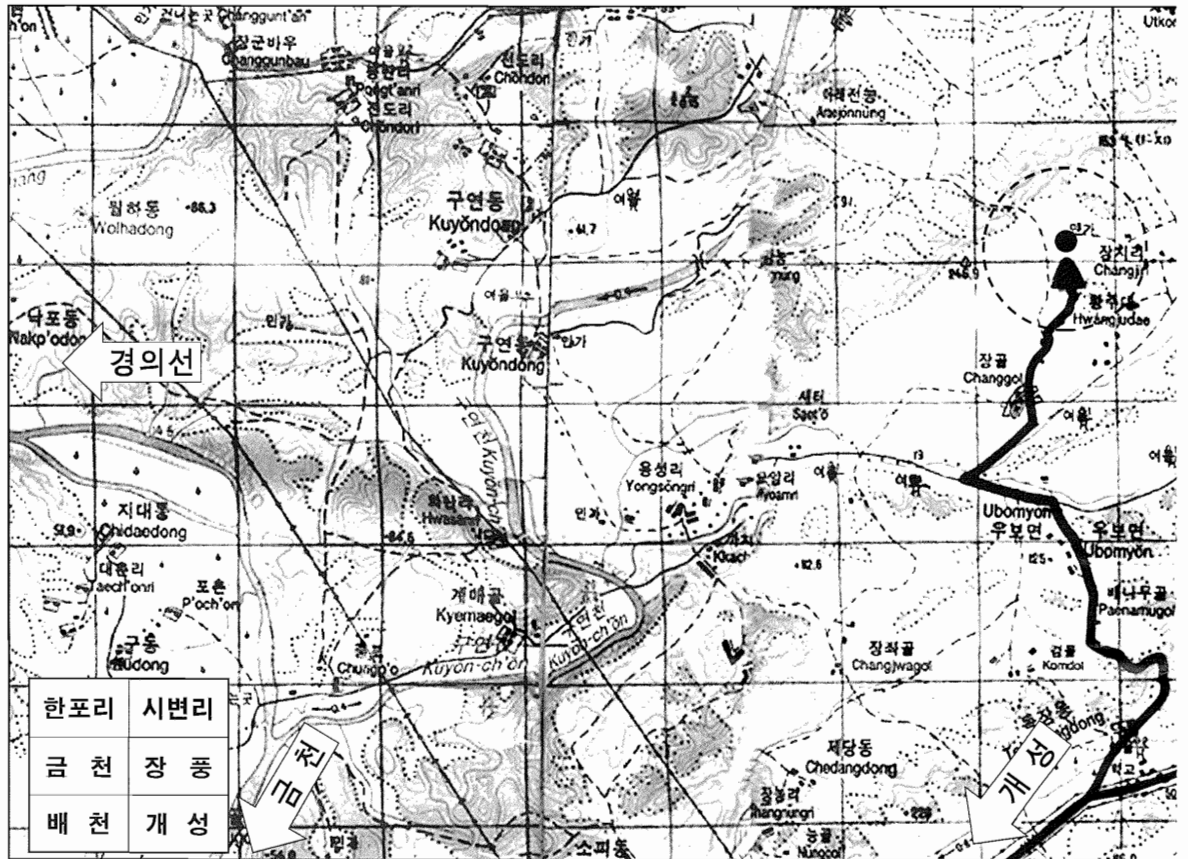
또 한 길은 개성에서 華藏寺(화장사) 가는 길로, 장단군 소남면 유덕리 마당동에 있는 시조 묘소에 들렀다가 黃鷄峙(황계지)를 넘어 三山里(삼산리)에서 서쪽으로 2km쯤 내려오면 송정리 고우봉골로 갈 수 있다. 그리고 高浪浦(고랑포) 自作里(자작리)에서 곧장 북쪽으로 五岫, 臨江, 古美城, 渭川, 黃鷄峙로 넘어가는 길이 있다. 이 길이 제일 빠른 길이다.

古牛峯

고우봉에는 지금도 官廳洞(관천동), 衙舍洞(아사동), 論達洞(논달동), 그리고 우봉골이 있다. 이러한 명칭은 아마도 고려시대에 우봉현이 있을 때 현청사가 있었고, 衙前(아전)들이

古牛峯과 義烈(子晟)공 도

원나라의 7차 침공에서도 굴하지 않은 장수 황주 전투에 출전 대적



살던 동네가 있었고, 縣(현)의 議會(의회)가 있었고, 족보에 기록되어 있는 시조공정(公靖)공, 2세 子平(자평), 子儀(자의), 子晟(자성)공이 태어난 桃李村(도리촌)이 있던 곳으로 추측된다. 가까운 동북쪽에는 國土峯(국사봉 △388)이 있고, 먼 남쪽에는 大屯山(대둔산 △760)이 있으며, 동쪽으로 牛嶺(우령 고구려의 首知衣(소제 吏譜)), 그리고 秀龍山(수룡산 △717)의 산맥이 오늘의 경기도 장단과 경계를 이룬다. 대둔산에는 봉수대가 있었고 '한뎀이 산이라 부르는데, 6·25전쟁 당시 북진할 때 방향을 찾았더니 戰禍(전화)로 불이 나서 그 큰산의 불빛이 너무나 장관이었다.

國土峯(국사봉)에는 古木林(고목림)이 있어 크낙새가 20마리 살았고, 송이버섯도 많이 나고 있었으며,

관천동과 論達洞 사이에는 낮은 언덕이 있는데 그 언덕 남쪽쪽 기슭에 고구려, 백제, 신라, 고려조의 이 지방관현들의 善政碑(선정비)가 있다. 그러나 행정 중심이 고우봉에서 금춘으로 옮긴 1651년 이후 주민들에 의해서 한 두개씩 없어져서 남은 것은 땅에 묻혔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한 두개의 고려비가 서 있을 뿐이다.

고우봉의 남 북에는 3~400m의 산들이 있고 丹明川(단명천) 건너 서쪽에도 300m의 산으로 둘러 쌓인 3x5km쯤 되는 아주한 분지이다. 이곳에 옛 우봉현청 소재지가 있었다. 그 牛峯縣廳(우봉현청)이 1651년(효종 2년)에 金川으로 현청을 옮겼는데 무려 5년의 세월이 걸렸다한다. 그 옆의 松亭里(송정리)에는 丹明川(단명천) 개울가

에 文武井址(문무정지)가 있다. 그 옛날, 이 문무정이란 유명한 온천이 있었는데, 하도 靈驗(영험)이 있어 하룻밤 목욕하면 수년 내에 將相(장상)을 낳는다는 놀라운 전설이 전해지고 있다.

이곳은 西京(서경, 평양)에서 남천을 거쳐 우령을 넘는 개경으로 들어가는 길목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중국의 사절들이 올 때 갈 때마다 며칠 씩 묵으며 쉬어가던 곳이다. 그러나, 대국의 사절들을 영접하느라 현감의 예산이 바닥이 나서 참다못해 관현과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 문무정을 물어버리고 말았다한다.

내가 12살 때 아버지 따라 고우봉을 찾았을 때 본 것은 높이 1.5m 지름 30~40m의 돌 각담뿐이었다. 이 온천은 연안 배천 온천으로 이어지는 온수 맥에 속했다고 하는데 애석하

다. 후일 통일이 되어 고우봉에 宗親會館(종친회관)이라도 짓는 날에는 이 문무정을 복구하면 그 운명비를 충당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이다.

義烈公(子晟)의 묘

자성공은 시조 공정공의 셋째 자제 분으로 문하시랑 평장사(차관급), 상장군, 金紫光祿大夫(금자자광록대부), 太子太傅(태자태부)이었다. 묘는 앞서 설명한 송정리에서 북쪽 언덕(△200)을 넘어 배나무골, 구 백마면 사무소와 백마초등학교가 있는 가진개를, 서쪽으로 돌아 長芝里(장지리) 壯洞(장동 약 40호)으로 안쪽으로 들어서면 외딴 두 집이 있는데 한 집이 우리 묘지기 집이다. (지도참조)

거기서 동쪽 언덕(△80) 위에 2세인 의령공 묘가 안

도로 가는 길

후 반란군 평정에서 큰공세위

문리학 박사 李炳昊
부사공 문중 한국과학기술원 부원장



치되어 있다. 또 동쪽으로는 관음齋(관음제)가 있었던 현 관음동(약 40호)이 있으며, 북쪽으로 넘어가면 이웃인 웅덕면 백양리가 나온다. 이 길은 비포장도로이지만 승용차로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송정리에서 3~4km의 거리이며 장단에 있는 시조묘소와의 거리는 약 5~60리나 된다.

자성공은 고려 고종 때 元寇(원나라)의 대란 중에 큰공을 세운 장수이다.

1231년(고종18년), 일차 元軍(원군)의 대 침공(20만 대군)이 있었다. 적군은 破竹之勢(파죽지세)로 아군(일만여 명)을 격파하고 의주·철산·구성·서경(평양) 봉산 황주로 쳐들어 왔다. 이 黃州(황주) 전투에서 자성공이 대 적군과 처음 대적하게 된다.(그후는 원군과의 대전은 없고 오로지 반란군의 평정에만 출전하였다.)

子晟(자성)공의 事蹟(사적)은 고려사 권103에 나와 있는 전문이 우봉이문추원록에 실려 있다. 다음은 徐巨正(서거정)이 편집한 東文選(동문선) 권26'에 실려 있는 除宰臣(제제신) 朴文成(박문성) 李子晟(이자성) 宋恂任(송순임) 景肅敎書에 敷衍(부연)하고 있다.

자성공은 器局(기국)이 웅대하고, 명량하여 天機(천기)가 豁達(활달)하고, 비락같은 기민성과 神珠(신주)같은 총명으로써 일찍부터 豪邁(호매) 하였으며, 龍釐(용린)의 後塵(후진)에 翔(고상)하여 요직에 올랐다. 고명하신 아버지 公靖(공정)공의 風度(풍도)를 이어으므로 한 고을의 원이 되어도 절조가 물같이 맑고, 참으로 장수다운 체통을 지녔으므로 국경에 나가서는 성안에 있기보다

일 료

우봉 이씨 부사공문중의 장손 한국과학 기술원 이병호 박사

-물성 물리학 음향학 기계공학 원자 핵 공학 분야의 대두-



병 호 박사

牛峯李門의 현재 이남에서는 장손으로 파악되고 있는 부사공 문중의 병호(炳昊) 교수는 5·16 당시 불모지였던 국방과학과 원자력 연구에 앞장서서 큰공을 남긴 물성 물리학, 음향학, 기계공학, 원자 핵 공학의 전문가로 우리나라의 대표적 과학자인 동시에 언제나 무슨 일이고 자신이 넘쳐흐르는 현대사의 주인공 그대로 현대사의 중언이며, 풍운아의 멋을 지닌 인상과 더불어 지금도 漢詩 연구에 몰두하리 만치 유교사상과 한문학의 조예가 깊다.

(상략) 悠의生生命中 有雪山的庄麗 飛瀑의秀美 悠의精神中 有春風의欣快

夏雨의豪俠 有秋云의飄逸 冬雪의純 (하략)
즉 님의 생명 속에는/월 눈을 이고 있는 설산의 장엄함과 화려함이 있고/날아 떨어지는 높은 폭포의 뛰어난과 아름다움이 있네/당신의 정신 속에는/봄바람의 호뜻함과 통쾌함이 여름날의 호쾌하고도 시원함이 있고/가을 구름의 빠르고도 경쾌함이 겨울눈의 순결함도 아울러 있네 (하략)

이 시는 병호 박사가 중여행 중 고분자연연구소 부소장인 劉白玲(유백영) 박사와 인연이 되어 이 박사에게 한시로 써서 보낸 '望東方'(동쪽을 바라보며)의 한 구절이다.

이 박사는 1924년 5월 1일 우봉 이씨의 근원지인 황해도 금천군 우봉면에서 독립운동가인 會九공과 경주 이씨 泛雁(범안) 여사 사이의 외아들로 출생하였다. 10살 전 이미 한학을 수학해서 鄉試(향시)에서 장원하리만큼 수재로 자랐다. 당시 가난한 농촌생활에서도 선친은 인문교육을 받아야한다고 주장하리 만큼 교육에 관심이 깊어 취직이 빠른 사

범학교나 실업학교 진학을 마다하고 개성중학(1936년)에 입학하였다. 대학생 시절에는 항일(1943~1944) 운동에 가담 활동하다가 체포되어 평양에서 獄苦(1944~1945)를 치르기도 하였다. 8·15 광복을 맞아 출옥하여, 정치적 혼란에서 정치에 휩쓸리지 않고 계속 학업에 몰두하여 서울대학교 공과대학(1946~1950)을 나와 서울공대교수(1955~1970), 그리고 영국의 Imperial College에서 물리학 박사(Ph. D. DIC. RCS.)학위를 받았다. 그후 원자력 연구소(1959~1960)와 국방과학연구소 창설(1971~1975) 요원으로 참여하는 등 우리나라 과학 기술 분야를 개척했다. 현재는 에리트코스인 한국과학기술원 교수(1975~현재 부원장)로 있다.

슬하에는 부인 黃貴任 여사 사이에 精一(48세 KAIST 전임연구원), 精祐(37세 미국 뉴저지주 테크놀 이 대학 조교수), 秀精(39 가정주부), 啟靜(35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강사) 등 2남 2녀가 있다. (글 兩泰 주간)

더 잘 해냈다. 船艙(도급)의 비밀병법에 통달하였고, 工·書·畫의 예술에도 능하였다. 군사가 많을수록 더욱 잘 통솔하니, 어찌 國士(국사)에 강한 포부가 아니겠는가. 가다가는 또 禪(선)에도 들고, 역시 醉仙(취선)의 雅淡(야담)한 풍치도 있었다.(나중에 荒酒 臺를 상상해 보아라)

도급 병법에 통달한 명장

막강한 원의 대군이 쳐들어오니 여러 장수와 함께 출정하여 황주 싸움에서 원의 대군의 급습을 받아 우리 三軍(삼군)이 혼비백산했을 때, 자성장군이 과감히 싸워 적장을 사살하여 적의 銳鋒(예봉)을 꺾으니 원병들이 도망치게 되어 흐트러졌던 아군들은 다시 모여서 힘을 합하여

추격전을 벌여 일승을 거두게 되었다. 이때에 卿(경)이 혼자서 적의 예봉을 당해 벌 때 날라 온 적의 화살이 경의 팔을 찔러 피가 채찍을 따라 흘렀으나, 화살촉을 뽑고 다시 행진하여 조금도 神色(신색)을 변치 않았으며 창과 칼을 들고 싸워서 전군이 이로 인해 안전을 도모게 되었다. 후일, 원나라 사신이 왔을 때 경의 얼굴을 여러 신하들의 班列(반렬) 속에서 알아보기도 했다한다. 하지만 원군은 20만 대군이요, 아군은 일만여 명에 불과했으니, 결국 패하여 항복을 하고 만다. 그러나 도처에서 원병과 교전을 하게 되니, 이 때가 1232년에 2차 침공을 감행하던 때이다. 이때에는 도저히 대처할 수 없어 개경(개성)을 포기하고 강화도로 천도케 된다.

이로부터 1260년 환도하기까지 30년간 7차의 침공 끝에 막대한 국가와 민족의 대 손실을 입고서야 완전히 항복하게 되고, 그 후 100년을 원나라에 속하게 된다. 이 난에 살아 남은 사람은 열 명 중 두 사람 꼴이었다.

제2차 공격 때에는 우리 백성 洪福源(홍원복)을 앞세워 구석구석 뒤져가며, 가장 혹독한 침략행위를 자행했다. 또 정부는 백성을 버리고 江華島(강화도·1232~1270)로 피했기 때문에 백성들은 우왕좌왕했고 도적과 반란군이 사망에서 일어나 판을 치기도 하였다. 그러나 백성의 안녕은 전혀 생각할 수도 없었고 국고의 수입도 엄청나게 줄 수밖에 없었다. 그

古牛峯과 義烈(子晟)공 묘로 가는 길

7면에 이어서

리하여 강도에서는 적군이 강화조약 때문에 간간이 철병하는 틈을 타서 육지로 나와 도적과 반란군의 무리들을 평안해야 했다. 그리하여 租稅(조세)의 수입원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절박했다.

1232년 제2차 공격에서 원군의 大元帥(대원수) 철레답(徹禮答)은 용인의 處仁城(처인성) 싸움에서 僧(승) 金仁候(김인후)의 화살에 맞아 죽고 만다. 그리하여 撤兵(철병)이 시작되었다. 이때 1232(고종19년) 開京(개경)일 때에 跋扈(발호)하던 이통(李通)이라는 大盜(대도)를 子晟卿이 평정하였다. 이들은 전에 침공했던 紅巾賊(홍건적)의 잔당들과 합작한 반란군이었는데, 그들은 江都로 피란한 틈을 타서 開京을 점령할 만한 대 세력을 가진 도적들이었다.

1233년(고종20년) 6월에 子晟卿은 中軍兵使(중군병사)로 龍仁倉(용인창) 반란군 居卜(거복), 住心(주심)을 처단했다. 그리고 충주로 진격해서 그 지방의 반란군도 평정했다. 이해 가을에는 東京(동경 東都 오늘 慶州)의 평정에 나섰다. 東都(동도)는 開京 다음 가는 고려 제2의 도읍인데, 江都로 피란간지 오래되지 않아 사람들이 두 세 가지 이름을 품게 되고 무리가 수만을 넘었는데 卿은 이에 명령을 들을 겨를도 없이, 곧 길을 달렸다. 이때에 上將軍(상장군)의 자격으로 간다. 그런데 그곳 반란군의 무리가 수만을 넘지만, 거느리고 간 官軍(관군)은 수천밖에 안되니 수로서는 꼭 열세였지만, 신평과 같은 지략으로 반란군을 제압했다. 최후의 一戰으로서 永川城(영천성) 전투에서는 영천성을 군사를 거느리고 남 모르게 밤길로 先占(선점)하여 준비와 전략을 짜다. 그러나 반도들은 미리 알고 영천성에 결전태세를 취하였다. 이자성 경은 城上(성산)에 올라가 역도들의 동태를 살피니 참모들이 그 세력과 수가 많은 것을 보고 성문을 굳게 잠그고 원거리

에서 행군해 온 피곤한 군사들을 폭 쉬게 하여 전투에 임할 것을 제의하였으나, 이자성 상장군은 피곤한 군사를 쉬게 하면 게을러지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역도들에게 우리의 실정을 드러낼 염려가 있으니 급히 공격하라고 명령하였다. 급히, 성문을 열고 나가 적진으로 돌진하니 미처 진영을 가다듬지 못한 반도들은 흩어지고 大破(대파)를 당하고 말았다. 경주로 가서 崔山(최산) 등수 십명을 처형하고 그들의 위협에 못이겨 반군에 가담했던 백성들은 돌려보내니, 온 백성들은 기뻐하고 반란은 안정되었다. 내란 평정에 큰 공을 세웠다. 이와 같이 이자성 경은 국가에 공훈을 크게 세워서 정부와 국민들의 신임과 기대가 점점 더해 갔다. 나라에서는 한 封(봉)의 檄書(격서)를 내려 어려운 시국에서 임금의 근심을 늦추어 드렸고 나라의 형세가 흔들릴 때 다시 굳건하게 만들어 놓았다. 이에 樞密院(추밀원) 비서를 주어 은총을 보이고 다시 御使台(어사대)를 겸직케 하였다. 왕은 경에게 항상 비상한 공적을 생각하여 官階(관계)를 뛰어 넘는 특진의 은총을 주고자 하였으나 그때마다 본인이 너무도 싫어해서 오랫동안 臉(짐)은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에 銀青光大夫(은청광대부 正三品)의 옛 階資(계자)를 바꿔서 새로 급자 광록대부 품계를 주어 鈞軸(균축)의 司(사)에 참여하게 하고 또한 판도의 부호부(部戶部)에서 일하게 한다. 특히 金紫光祿大夫(금자광록대부) 參政事判戶部事(참정사판호부사) 太子太傅(태자태부 從二品)을 除授(제수) 한다. 1235년(고종22년)의 일이다.

그후 1241년(고종28년)에 門下侍郎平章事(문하시랑 평장사 正二品 次官級)의 관직에 서게 하시어 온 백성이 그의 많은 공을 칭찬하였고 임금님이 크게 기뻐하였다. 특히 동도 반란 평정시의 온 백성의 신임과 기대는 고종이 경을 특진시키려 했지만, 당시 崔氏秉政(최씨병정)의 시기가 두려워 병을 자칭하고 두

문불출하여 그를 사양하는 기지가 있었다. 그 당시는 崔忠獻(최충헌)의 아들 崔瑀(최우)가 전권을 휘둘렀을 때라 고종 임금의 특진으로 경의 생명에 위험이 올 수도 있을 때였다.

1251년(고종38년)10월 3일(음), 문하시랑 평장사 자리에서 서거하시니, 온 백성과 고종의 슬픔은 이루 말이지 못했다. 義烈公(의열공)의 諡號(시호)를 받게 된다. 이 해는 江都에서 還都(환도)하는 1260년에 비해 9년 전이므로 일단 江都에 매장했다가 還都 후 어느 해인가 牛峯縣 長芝里 觀音齋 南詞義峰으로 이장했다 보다. 그 곳 비문을 읽어 낼 수가 있으면, 소상히 밝혀질 연단.... 또 한가지 말해두고 싶은 것은 그 詞義峰 공의 묘소 바로 남쪽에 荒酒台(황주대)라는 곳이 있는데 습의 건물은 없어진지 오래지만, 앞에 溪川(계천)의 맑은 물이 감돌고 醉酒仙客(취주선객)의 風流(풍류)의 장소인 것 같이 보이나 아마도 경의 소시 적에 관음제에서 공부하면서 이 荒酒台에서 仙客이 되었던 곳은 아닌가 싶다. 그곳을 찾는 이는 여기도 주의해보는 것도 유익하리라 본다.

註) 敎書에는 金紫光祿大夫이나 正二品이므로 卿이라 했으나 그 후 門下侍郎 平章事 從一品이므로 公의 칭호를 부친 것이다.

其他名所 (黃政丞, 韓石峯, 杜門洞)

牛峯縣은 開京에서 5~60리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오늘의 畿內(기내)에 속한다. 저 유명한 黃政丞(황정승 黃禧)은 兎山面(토산면) 龍岩(용암) 태생이며, 명필 石峯(석봉 韓濩)은 口耳面 德安에서 나왔다. 조선조 초에 고려 충신들을 등용하고자 李成桂가 두 번 방문했던 杜門洞 72인의 杜門洞도, 口耳面 秀龍山 高棧(이월공 문중 集姓村 약 50호)에는 一堂(李完用 23세 갑찰공 문중)翁이 한일합방 후 1~2년 피신하여 와 있던 곳이다. 6·25 수복 때 들었는데, 그 집의 기둥에 도끼질을 당했다한다. 모두 10여km 이내에 있으니, 남북통일이 된 후 함께 구경하러가도 좋을 상 싶다

寅九 穎 阜 記事 甲寅六月

- 1927년판 세보편찬 당시 전후 사정을 밝힌 내용 -

편집자 주 : 寅九 공은 1927년판 세보편찬의 발기로부터 편찬에 앞장서서 문경과 서울을 오고가며 전국의 중인들과 접촉하면서 세보발간의 전후사정을 밝힌 내용을 穎阜記事(영고기사 서울 연희동 鼎茂씨 所藏)를 필체본으로 글을 남긴 분이다. 이 영고기사의 내용을 보면 당시의 세보편찬의 고충과 함께 집안의 내력을 짐작할 수 있어 문중의 귀중한 자료로 인정된다. 따라서 기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일깨워 주고 있어 우리에게 시사하는바가 크다. 한글세대의 이해를 위해 일부를 현대로 옮겼다.

시작하는 말

학초(鶴樵寅九 1852~1932) 子克燁 호 鶴樵 부 奇用 聞慶 태생)공은 牛峯李門의 인걸로 문경에서 태어나 80평생을 儒生(유생)으로서 남다른 애국충성을 실천하고 특히 崇祖尙門(송조상문)의 정신으로 집안의 세보(丁酉 譜 1927년판) 간행에 앞장섰을 뿐만 아니라, 항상 학문을 닦고 문중 위선사업에도 각별한 업적을 남긴 분이다.

구한말 고종조의 12년 전인 1852년 문경에서 출생하여 倭政治下(왜정치하) 초기까지 격동의 최근세까지 시련시기에 사신 분으로 大勢(대세)에 휩쓸려 國恥(국치)를 당한 어려움 속에서도 경상도에 사는 평범한 시골 유생으로서 체질화된 崇儒思想(송유사상)과 崇祖尙門(송조상문)정신이 徹頭徹尾(철두철미)한 분이였다.

특히 공은 문정공 도암 선생의 학맥을 기리어 계승하고자 영남 유림과 널리 제휴하여 일찍이 龍湫(용추)계곡의 명승지인 鶴泉亭(학천정)에서 講學한바 있는 陶庵(도암·緯)선생의 影幀閣(영정각)을 세워 봉안하고 文廟(문묘)에 配享(배향)하는 영남유림에 앞장섰다.

따라서 穎阜記事를 통해 우리 선조들께서 우뚝 가문을 위해 헌신한 정신을

새삼 吟味(음미)하고 그 뜻을 받드려 후손으로서 가정과 사회발전에 헌신할 수 있는 우뚝이 되도록 기대하며 소개한다.

학천정에 도암선생 영각 수직소 설치

(상략) 1893년(癸巳) 簇洞에 가서 陶庵선생, 華泉선생, 小華선생의 遺像(유상)을 天九씨택에서 瞻謁(첨탈)하였다. 1898년(戊戌) 봄에 낙천공의 발의로 상주 비안의 일가들과 함께 청백리공과 판서공 묘소를 가꾸고 사초를 했다. (중략)

1902년(壬寅) 봄에 尙州 興岩書院(상주흥암서원)의 통문을 접수하였는데 도암 선생의 영정각을 창건해야 한다는 글이었다. 이 문제는 매우 신중하게 다루어야 하겠기에 각 군에 통문을 발송하여 문경 가북 장지에서 회의를 개최하여 그 해 가을부터 영각을 짓기로 결정하였다. 1903년(癸卯) 4월에 淵齋(宋濬潯 諱 文忠 允庵 9세손)선생이 講學차 내임하여 영고남의 유생들 50여 명이 참가하여 鄉飲酒禮(향음주례)를 갖다. 가을 9월 29일 도암 선생의 생신이어서 眞像(진상)을 죽동의 天九씨 택에서 모셔와 영각에 봉안하고 生辰茶禮(생신다례)를 차렸다. 도암 선생의 이 진상은 寒泉書院(한천서원)에 모셨던 遺像(유상)이었다. 茶禮는 誕降日(탄강일)에 올리는 定例(정례)대로 하였으며, 字號(정호)는 송선생 의견에 따라 鶴泉亭 그대로 完定(완정)하고 影閣(영각)의 守直所(수직소)를 세우기로 하였다. 京鄕(경향)의 縉紳(진신 공직자)과 유생들이 講學은영비를 마련하고자 계를 조직하기로 하다. (鶴泉日記 참조)

1906년(丙午) 경상도 관찰사로 계신 允用(윤용 判書)공의 부름받고 鶴泉亭에 관한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렸다. 1910년(庚戌) 7월에 서울에 사는 瑞用, 舜用과 丙瓚(도암공 종손) 등 일가가 鶴泉亭의 일부 땅을 鄭世憲이라는 사람에게 암암리에

팔아버려 영전을 철거했다. 천지신명이시여 이 어찌 이런 일이 있사오이까....

고종황제 승하로 大漢門에 나가 곡배

(중략) 1919년(己未) 1월 22일 고종 황제께서 21일 승하하셨다. 2월 2일에 因山(인산)이 있다는 말을 듣고 길을 떠나 三嶺店(삼령점)에서 일박하고 23일에는 壽峰店(수봉점), 24일에는 철도편으로 서울에 도착하여 昌成祠(창성사)의 丙翼(병익)의 집에서 쉬다 음, 5일 大漢門(대한문)에 나갔다. 팔도 유생들이 모두 모여 哭拜(곡배)하니 부모상을 당한 것 보다 더욱 하늘을 진동케 하였다. 2월 1일 고종황제 龍駕(용거) 상여를 따라서 安甘川(안감천)에 이르니 백성이 구름같이 모여들어 산과 들을 덮으니 바로 人海(인해)를 이루었다. (중략) 6일 청량리에서 승하하신 황제의 返魂(환혼 혼을 돌려 묘당에 안치) 행사가 있어 청량리에 나갔다. 13도 유생들이 든 挽章(만장) 悼旗(도기)는 수 없이 많았고 그 속의 곡성은 땅을 진동시켰다 그 슬픔은 다시 나라를 잃은 닢두리로 변하여 조선독립 만세소리가 하늘을 찔렀다. 布德門(포덕문)과 大漢門에 이르니 2천만 생령들의 원통함을 알겠구나.

세보 편찬 발기인으로 활동

1921년(辛酉) 6월 10일 鶴泉亭의 庫舍(고사)를 정자의 우측으로 세 칸 정도 물려서 지었는데 7월에 끝났다. 1922년(壬戌) 4월에 서울집에 가니 27일 죽친 仁用씨가 자부(자부)를 보았다고 그 다음날 서울에 사는 여러 일가들을 불러 잔치를 했다. 이 때 일가들은 나에게 다른 문중에서는 족보를 만들거나 꾸미고 있는데 우리 문중은 500여 년간 종합된 족보가 아직 없다는 것은 통탄한 일이라고 말하고 40여 년간 중사 일을 맡아보고 있으니 족보편찬의 발기인이라고 하고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그 다음날 允用판서께 이 뜻을 말씀드리니 즉석에서 쾌히 승낙하고 소중중 별로 수단을 받아서 교

정작업을 세심히 하여 발간하자고 했다. 그리고 完用 판서에게 품의하니 비단 재정상의 어려움도 있었으나 더욱 庶子(서자)문제도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鎬成 관찰공은 좋은 일이라고 찬동하였다. 이러한 집안 어른들의 의견을 수렴 끝에 5월 2일에 豊用씨와 상의 끝에 서울에서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5월 3일 會九씨택을 방문했다. 기금조성을 위해 이 집안에서 회구씨 형님과 상의 끝에 50圓을 선납하여도합 100圓으로 세보 편찬 사업에 따른 발문업무를 착수하게 되었다. 5월 4일 會九씨택을 방문하니 그의 중조부이신 承旨공께서 己巳년에 족보제작을 위해 수단을 받다가 중단된 일을 상기 시켰다. 5월 仁用

주, 수원, 시흥, 덕산, 迎山(영산), 대전, 충주, 지평, 연천, 김포, 장단, 통진, 고양, 은진, 익산 등 17개군으로 우포대가 2圓들었는데 우선 내가 선급하였다. 7월말에 대총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宗約所(대총회 사무실)를 임시로 豊用씨의 豊用씨택으로 정하고 이를 각파에 통지했다. 대총회 총회 때 중식대는 豊用, 會九씨와 내가 내기로 약속하다. 7월말 각 소중중 일가들이 50여 명이 모여 편찬에 대한 범례를 정하려고 庶子의 구분을 없애자는 의견에 반대하는 의견이 있는 가하면, 편의하게 하자는 의견이 나와 會九씨가 나서서 承旨 韓氏문중의 경우를 附記(부기)하여 時勢(시세)에 따라라고 하자 찬

다고 전제하고 왜 相助之人(상조지인)과 아무런 상의가 없으니 어찌된 일이냐고 반문해 왔다.(중략)

문경공 묘 지식 발견으로 묘소 단장

4월 10일 창성동으로 가서 그 다음날 會九씨와 會九씨를 방문했다니 鎬元도유사가 별세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어 누굴 추천할 것인가를 상의 끝에 年高行高者로 천거함이 가하다고 말하면서 중진을 천거해야한다고 내가 말해 삼정동의 允用씨를 도유사로 선임하게 되자 각 문중에서 이론의 여지가 없었다. 특히 이날 鶴泉(작천) 문중에서 100圓을 송부해 왔다. 會九씨가 각 문중의 족보의 필요 부수를 예약

어진 형상인지라 틀림없이 墓賊(묘적)이 盜掘(도굴)하다가 지석을 발견하여 포기한 것이었다. 마침 弼寧일가가 이곳에 살고 있어 찾아온 사람이었다. 墓賊이 아니었다라면 700여 년간 실전되어 온 분묘를 어느 누가 알았으리오 가위 전화위복이라 하겠다. 우리 牛峯李氏姓을 갖고 있는 사람의 커다란 경사라 할 것이다.

1925년(乙丑) 8월 丙翼의 서신을 받았다. 새로 단장할 文景公 墓所의 산림 16만 5천평을 1,550圓에 매수했다고 소식을 전해 왔다. 1926년(丙寅) 1월 22일 茅亭 齋室의 기와 수리를 위해 石橋(석교)에서 대들보감 5본을 팔아 운반해 왔다. 석가래감은 모정에서 구했다. 목수와 瓦工(와공)이 1개월간의 작업으로 3월 18일에 마쳤다.

隆熙(용희 純祖 6 10 국장) 황제께서 昇遐(승하)하시어 20일 뒷산에 올라 望哭(망곡)하고 成服(성복)하였다. 온 나라 백성이 부모의 상을 당한 것같이 애도하였다. 1927년(丁卯) 10월 1일 시조 문경공의 歲祀日(세사일)이다. 族弟(족제) 成九를 유사로 묘소에 파견하여 告由文을 奉讀(봉독)하도록 결정했다. 서울에서는 세보편찬을 允用, 鎬成, 丙默 제씨를 제외하고서는 아직 내지 않았다고 한다. 允用씨는 조카되는 恒九씨의 岐貳(기이 작은택 계대)라 해서 이름을 도려 냈다고 한다. 문경파에서는 모두 찬동하지 않아 중지하다. 시공이 보낸 서찰에서 시조공 묘소의 石物(석물), 墓閣(묘각), 位土마련을 恒九씨가 전담했다고 한다. 丙翼이 譜所의 財務를 맡게 되었다고 한다. 3월 24일 석물을 운반한다는 소식에 우리 문중이 昌大(창대)할 것이라는 마음이 든다. 1928년(戊辰) 시조 문경공 비문과 墓表(묘표)를 恒九씨가 인출하여 각 문중에 송부했다. 장단의 시조공 묘소 작업은 참여자들이 성심을 다하니 京鄉(경향)에서는 큰 경사가 아니겠는가.... 11월 陰城(음성) 杏亭(행정)의 爽用(석용), 시흥의 定九(정구)씨가 신림동 執義公墓의 位土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왔다.(하략)(끝)

시조공 지식 발굴과 첫 세보편찬과정 밝혀 도유사 茂學

씨를 만나고 돌아오는길에 시흥(현 개봉동)에 있는 청백리공 묘소를 찾았다. 이 묘소 앞에서 감회가 깊어 詩三首를 지었다.

親恩(친기)가 열흘이 가까워 오니 외출할 수가 없는데 豊用씨와 會九씨가 세보편찬에 대하여 상의하러 왔다. 8일 會九씨 택에 가서 己巳년에 작성하던 수단자료를 보았다. 청백리공 상하 3대와 신림동 집의공 묘소의 兆次圖(조차도 묘소 지도)가 있었다. 선인들의 奉先事(봉선사)가 치밀고 정확하게 감탄 아니할 수가 없었다. 10일三更(삼경)에 제사를 지내니 豊用, 會九, 鍾九씨가 문상해 주었다. 昊天岡極하다. 茅亭 親山에 들렀다.

각 지방에 통문 발송

11일 밤에 會九, 會九씨와 함께 通義洞 豊用씨 택에서 세보편찬에 관한 내용을 상의 하고 15일 憲九(승지), 應九(찰의), 鍾九, 會九, 會九, 文用, 仁用 제씨가 모여 각 지방일가들에게 통문을 발송하였다. 발송된 지역은 문경, 경주, 의성, 옥천, 금천, 횡성, 곡산, 아산, 서산, 음성, 청

반의 의견이 팽팽하였다. (중략)부서 직책은 年高行高(연고 항고)로 정하기로 하여 常務有司에 鎬元(만회당 종손), 會計掌財에 豊用, 書記에는 丙翼, 校正有司는 丙稷, 憲九, 仁九씨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각 파에서 각출된 비용이 800圓이었다. (중략) 서울의 芝菴公(지암공) 문중은 鎭川에서 일가가 살고 있다고 하기에 通文(통문)을 보냈다.

1923년(癸亥) 2월 21일 會九(譜所 총무)씨는 편찬 사무실이 협소할 것 같다고 玉洞(一堂택)의 분부가 있기를 사직동의 鶴九(학구)씨 택을 譜所(보소)로 하라고 하고 설치일에는 각 문중에게 알리도록 弼寧(면녕)씨에게 지시했다고 전했다. 3월 18일 금천 일부와 횡성, 옥천, 장단 각파의 수단이 들어 왔다. 각 문중에서 들어 올 비용 모금이 저조하여 아직까지 100圓에 불과하여 8,000圓이란 거금을 언제 모금될런지 이리다가는 성사여부가 의심될 지경이다. 會九씨는 서신을 통해 譜事(보사)가 獨擔(독담)전임(독담 전임)으로 되어서는 안 된

받기위해 지방 순회한다기에 鶴泉 문중 20圓, 城隍(성유) 30圓, 여비 50兩을 배정하여 마련하여 보냈다.

1924년(甲子) 鶴泉亭 契錢(계전)이 약 1,140兩 수입되어 4斗落의 논은 鶴泉에 매수하고 도암선생 舊亭原韻(구정원운)과 제반 내용을 새겨 亭堂에 걸었다. 1925년(乙丑) 4월 1일 允用(완용)판서께서 丙翼씨를 시조 文景公의 塋域(영역)이 발견된 장소인 금천(당시 長端郡 小南面 德有里(有德里) 馬踏洞(桃李村))에 先遣(선견)하였는데 9일에 完用 판서와 鎬稷, 鎬成, 會九 및 丙翼 제씨가 모셔왔는데 奉審(봉심)하니 '李公靖之墓'가 완연하고 황서로 金紫光祿大夫 峯城府院君 門下侍中 諡文景公 熙宗七年 歸于牛峯桃李村 庚申九月十七日卒 配利川徐氏라 되어 있었다. 金川郡의 新舊沿革을 조사해보니 절반은 開城에 속하고 반은 長湍에 속해 있었으며 옛날의 桃李村이 小南面 馬踏洞으로 변하였다. 묘는 長坐原(간좌원)인데 石槨(석곽)의 좌우가 깨

춘계 조상묘소 순례 성황리에 끝내

해마다 청장년회 주최로 실시

지난 5월 21일 청장년회(회장 창무)가 주최하는 2000년도 상반기 춘계 조상성묘 순례가 오전 7시 강남에 위치한 아세아 타워에서 장도에 올랐다. 이날 대중회장(병주)을 비롯하여 도유사(무학), 청장년회 및 일가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북 연기군 사관정리 대박동에 모신 타우공(翺 숙종조 대사헌) 묘소와 원성리에 모신 자강공(自強 承健 1452~1502 戶判) 묘소를 참배하고 청주에 있는 아세아제지(주)를 둘러 보았다. 아세아제지에서는 창무 사장의 안내로 현황을 청취한 후 점심을 대접받았다. 그런데 타우공은 1689년 서인인 우암(송시열)공이

실각되고 남인이 집권한 己巳土禍 때 투옥되어 옥사리를 하였으며 나중에 文穆의 시호를 받은 선조로 지금도 雷巖祠에 모셔오고 있다. 또한 자강공은 연산군 때 두 차례나 명나라 사신으로 다녀온 분으로 부제학, 함경도 관찰사, 호조참판을 지낸 선조이다. 이날 행사에 협찬하신 일가는 다음과 같다. 창무회장(우산 60개), 대중회 300,000원, (주)광일 만영 200,000원, 승녕 200,000원, 신무(고문) 100,000원, 병남(부회장) 100,000원, 해무 100,000원, 창무(부회장) 100,000원, 우녕 음료수 7Box



타우공 신도비를 봉심하는 일가들 / 사진 응무유사 제공



(주) 光一 萬寧사장 초청으로 공장을 방문한 중무위원들 / 사진 응무유사 제공

자녀 교육에 우선하여 결실 거둔 문경의 인녕씨집안

손자 範奎(준) 미 위스콘신 메드신 주립대학교에,
미 크린턴 대통령으로부터 성적우수상 수상 손녀는 서울대학교 특차로 합격



범규 군



경윤 양

대중회 세보편찬위원회 寅寧위원의 손자인 범규(준)와 손녀인 京胤(範胤 17세) 양이 미국 위스콘신주 메드슨 대학과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에 각각 합격하여 문중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인녕 위원은 6남매를 두고 있는데 차남 昌烈(창렬 聖茂) 자부 결성 장씨 계순) 씨의 장남 범규(範奎 19세) 군은 우수한 성적으로

미국 위스콘신주 메드슨 대학에 합격되었다. 특히 뉴스란 고등학교 졸업 때에는 미 대통령이 주는 성적우수상을 클린턴 대통령으로부터 수상하여 남다른 향학열이 깊은 학생으로 인정받았다. 또 인녕 위원의 장남인 원무(元茂 昌根) 자부 밀양박씨 순자) 씨의 1남1녀 중 장녀로 태어난 경윤양이 2000년도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에 특차로 합격하여 향학열이 높은 집안이라고 주위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그런데 범규군은 서울 문정중학교 3학년 때 미국으로 유학 갔으며, 경윤양은 대구 정화여자고등학교를 나온 재원으로 장래가 촉망되는 학생이다.



크린턴 미국 대통령 표창장

대중회 홈페이지 설정

지난 7월 15일부터 대중회 홈페이지가 설치되었다.

홈페이지 내용은 창경궁의 정문을 배경으로 목차, 우봉헌 내력 및 소개, 가훈, 대중회 조직, 중무위원회, 청장년회, 세보편찬 위원회, 집안을 빛낸 인물 시조공을 비롯한 의령공(자성), 도암선생 및 조선조 때 중요 인물 소개, 현대 인물로는 타개한 분을 중심으로 두계(병도)박사, 창구박사, 병린변호사, 서봉(동녕)회장소개, 계춘법, 가족호칭, 공지사랑, 방명록으로 되어있다.

그런데 홈 페이지 제작은 茂赫(무혁) 대학생 23 우녕씨의 장남)군이 편집작성 했는데 대중회의 주소는 다음과 같다.

홈페이지: <http://woobonglee2000.hihome.com>
E-Mail: woobonglee2000@yahoo.co.kr

收單作成 要領

1. 세보편찬(2001년 발행예정)은 舊譜(丁卯譜 1927년판)와 甲寅譜(1974년판)를 근거로 하여 제출된 收單을 중심으로 편찬한다.
2. 세보의 연대 표시는 韓國史(진단학회 발행 부록)年表를 기준 하여 역대 王朝年號와 干支 및 西紀年號를 사용한다.
3. 세보편찬 제작비용은 찬조금, 수단금, 세보대금으로 충당한다.
- 가. 찬조금(20만원 이상은 세보 1질 기준)
- 나. 수단금은 생전자 1인당

5,000원[사위(參)는 공제]다. 세보의 가격(8만~10만원 이내 책정예정)은 심의 후 결정한다.

干支 西紀 生年月日 學歷(學士 이상) 표기, 經歷(관직은 主事 이상, 軍隊는 장교(하사관급 포함) 이

록 한다. 6. 配位(배위)는 再娶(재취)는 물론, 三娶(삼취)를 막론하고 配(배)로 하고 本貫(본

하고 생존자의 경우 適庶의 표기는 하지않고 순서대로 기입한다.

9. 出系 后는 出后先을 표시하고 該當卷面을 기입한다.(예: 生父이름과 該當 卷面 쪽표시)

10. 出家女는 女 〇〇 이라고 이름을 명기하고 생년월일 및 학력, 경력, 자격 등을記入한다.

11. 孀(사)는 본관, 성명, 국가고시 및 박사급 이상의 자격만 표시한다.

12. 墳墓(분묘)는 도시(군)동(면) 지면 등을 명기한다.

세보편찬 작성요령

라. 세보 예약 금액은 1질당 2만원으로 한다. 4. 수단의 작성은 諱(휘)와 성명은 한자와 한글을 병행 표기 하며, 학력 및 경력 등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鎬學 호학 字 佑永 號 觀圃齋

상, 직장명, 직급, 직위) 賞勳내용(德行, 孝行, 국무총리 및 대통령 표창 이상), 著書, 墓域 表示(묘 위치 행정구역 주소) 5. 시조 문경공 이전의 系代는 세보 부록에 수록하여 淵源研究에 참고할 수 있다

관), 姓名, 생년월일(干支, 西紀), 學歷, 主要經歷과 父親名(최종직위)의 女라 記入(조부 이상은 생략)한다. 7. 외국 유학 중인 종인은 國名, 校名(영문), 專攻科目을 명기한다. 8. 謄載順序는 先男 後女로

빙판의 꿈나무를 키우는 鍾萬씨

어려운 처지에 있는 선수 뒷바라지 10년



원주시 빙상선수단을 10년간 뒷바라지해온 이종만(좌), 유중수씨

전국에서 빙상의 고장이 라면 원주를 가리킨다. 그만큼 강원도 빙상의 기대주들이 자신들만의 노력으로 이룩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 뒤에는 헌신적으로 이들 꿈나무를 키우는 선수들의 두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을 원주에서 사는 시민들은 다 알고 있다. 그 주인공이 이진희 선수의 아버지인 이종만(鍾萬茂)자 항렬 48세 부 敏寧 원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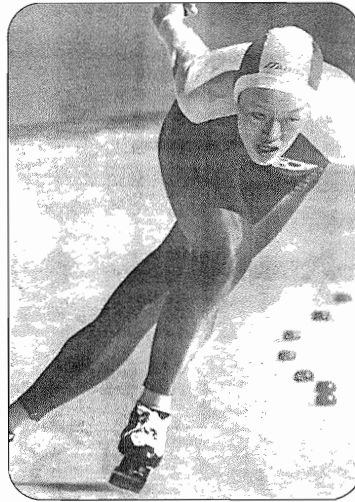
시 학생 2동 430-10번지)씨와 유정수(44세)씨이다. 종만 일가는 제과점을 운영하면서 가정형편이 어려운 원주지역 빙상 선수들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고 있다. 지금까지 키워 간간 선수만도 외동딸인 진희양을 비롯해 15명이나 된다. 특히 대회가 개최되는 겨울철에는 사업을 접어두고 선수들을 따라다니면서 시중을 드는 열성에 전국 빙상선수과 임원들은 모르는 사람이 없다. 이 두 아버지의 계약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선수들이 자급 자족할 수 있을 때까지 돕는 일이다 보람이라고 말하고 있다.

편찬에 필요한 중요도서 기증

지난 2월 15일 병순(감사)와 건녕(종무위원) 일가가 대중회 세보 편찬 업무에 도움을 주기위해 소장 도서 한국사 대사전(1987. 5. 10 · 교육출판공사 발행 ·李弘植 박사 편저)상 ·하 권과 성씨의 고향(1989. 2. 18 · 중앙일보사)을 각각 기증했다.

동계체육대회에서 금메달 딴 집안의 딸 진희양

중학 2학년 때부터 두각 나타나



빙판에서 질주하는 진희양

지난 2월 81회 전국동계 체육대회에서 강원도 원주 여자고등학교 3학년인 우봉 이씨 집안의 딸인 진희(진희 18세 부 鍾萬(茂) 감찰공문중)씨의 1남 2녀)양은 1남 2녀 중 맏내로 등부 스피드 스케이팅 1000m에서 금메달을 획

득해 빙상계의 스타로 주목을 받고 있다. 진희양은 작년 전국대회(80회)에서 도 1000m와 1500m에서 2관 왕으로 우승한 바 있으며, 국가상비군인 진희양에 대하여 빙상관계자들은 세계적인 스피드 스케이팅으로 성장될 수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그런데 진희양

은 중학 2년 때부터 아버지의 뒷바라지로 스케이팅을 시작하여 그 동안 각종 대회에서 수상된 순위와 기록은 다음과 같다.

한·일 交換交流競技會 ALL-ROUND 1000m 1위(1' 28"94 · 1999년 12월 27일) 제80회 전국 동계체육대

회 빙상 스피드 스케이팅 여자고등부 1위(2' 17" 50 · 99. 2. 12)

제81회 전국동계 체육대회 여자고등부 1000m 1위(1' 23" 37 · 2000. 2. 18)

제81회 전국동계 체육대회 여자고등부 1500m 1위(2' 08" 44 · 2000. 2. 18)

제30회 회장배 전국남녀 빙상경기대회 1500m 1위(2' 15" 95 · 2000. 1. 6)

제33회 전국남녀 중 고등학교 종합빙상선수권대회 여고부 3000m 1위 · (4' 47" 32 · 2000. 1. 20)

제34회 전국남녀 종목별 빙상선수권대회 여자부 1500m 1위(2' 10" 54 · 2000. 2. 19)

제36회 전국남녀 중 고등학교 회장배 빙상경기대회 여자공등부 1500m(2' 15" 83 · 2000. 1. 31) 대회신기록(한국중고등학교 빙상경기 연맹 회장 李宅洙)

동정! ▲炳昊(KIST부원장(명예교수) 부사공문중)대중회 인사차 방문(99.12.31)▲ 丙七(부회장 세보편찬 위원장)업무출장(미국 3.5~12)▲ 漢九대중회 인사차 방문(3.20)▲ 丙鎭(대사간공 문중 육군사관학교 중국어 교수)대중회 인사차 방문 『老子』 단행본 발간 ▲範植(의령공 문중)2.15. 의령공 문중 계대문 제 토의차 내방▲進姬(부 鍾萬 원주시 학정동)2.15. 전국동계체전(빙상부)에서 금메달 획득(1100m)▲ 玆茂(옥천 의령공문중 옥천 교우회 회장)대중회 방문(3.3)▲昌茂(한국산업기술연구소 고문 이학박사)대중회 인사차 방문▲俊九(대중회 고문 청백리공파 중증회장) 청백리공파중 명의로 발전기금 전달차(5.3)▲茂鴻(청백리공파중 제1부회장)▲丙國(청백리공파중중 총무이사)인사차(5.3)▲允衡(감찰공문중 중순 건축가)부부(부인 金正姬)캐나다 밴쿠버 거주 대중회 방문 (6.13. 출국)연락처:303-3010 ONTARIO ST. VANCOUVER, BC CANADA V5T 2Y7 ▲丙天(종무위원 ·

서예가) 서울 미술전람회(7. 11~17)심사위원장으로 위촉. 옹모작품 230점 심사(대상 · 한글부문 · 황성순) 및 초대 작가로 도암선생 시 출품▲ 品茂(문경 해성실업(주)사장) 鶴泉亭 影頤閣 上樓文 原本檢討次(5. 31) 대중회 내방▲寅茂(감찰공 문중)KAIST 테크노 경영대학원 조교수 승녕 종무위원 아드님 인사차▲茂林(밝은안과 국제 콘택트렌즈 대표)인사차 내방 ▲ 대중회 총회 '99.11.7 (서울 중구 장교동 한화빌딩) 341명 참석. 표창수상 일가 爲先부문 丙俊(양주 주대면), 寅寧(서울 강서구 염창동), 昇茂(대전시 대덕구), 奉祀부문 안병원(安九세 부인 파주시 교하면), 族誼實踐부문 舜寧(대중회 부회장 청주시 상당구), 健茂(청주시 상당구), 善慶(경주시 안강읍), 在寧(대구시 달성구), 紀春(경주시 안강읍), 학행부문 東旭(부산시 학생부문)▲起淵[감찰공 문중 문앤지니어링(주) 상무이사 철도신호 기술사]계대 확인차 내방▲김포 강

회문중(회장:鉉寧) 김포 개곡리(99.11.21 임원선임), 1/4 분기임원회의(1.15) 및 세보 편찬 수단 제출한 토의▲중무위원 및 세보편찬위원 간담회 24명 참석(주)光一 온양공장 방문(99.12.10) 萬寧사장 안 내 仲茂사장 온천목욕초정참석차 丙七, 丙吉, 丙泰, 丙天, 丙國, 丙珣, 丙秀, 寅寧, 宇寧, 昇寧, 健寧, 泰寧, 喆衡, 根寧,

계 · 시 · 판

茂卓, 龍茂, 範瑞, 範泰 ▲丙朝(종무위원 · 중대 명예 교수) 인사차 ▲德用(지평공 문중) 萬用 종무위원 수단 제출차 내방(7. 21)▲鉉寧(김포 강화문중회 감사)11월21일 문중 임원개선 김포 강화 문중회장에 취임▲중무위원회 및 세보 편찬위원회 개최(12.29) 옥미정(울지로 입구 삼성화재 빌딩 지하), 병철 부회장(주재) 강제유사(茂錫) 사표 수리에 대한 조치로 丙珣(김포)를 강제유사(임시)로 선임, 편찬위원회 기획팀 간사장에 健寧 종무위

원을 임명▲청장년회(회장:昌茂)신년하례회개회(1.16) 아세아 시멘트공업(주)아세아타워 桃園▲부사공문중(회장:範吉) 積城(파주 연천 문산지역 일가모임) 2월13일 파주지역 총회 丙吉 대중회 부회장, 茂學도유사 참석▲중무위원회 및 세보 편찬위원회 개최(3.29) 무석 강제유사 사표에 따른 선임 명순 감사가 강제유사로, 감사에는 대녕 종무위원을 선임, 건녕 간사장 세보 편찬기본 계획 보고▲丙泰

(대중부주간) 세보 감사위원으로 위촉▲청장년회(회장:昌茂)5.21 춘계 선조묘역순례 행사 실시, 춘남 연기군 전의면 원성리 노루목(自強公 承健), 전의면 관정리 대박동 산마루(打愚公 翽), 청주 아세아제지(주) 방문▲丙德(부회장) 秉茂(부회장) 세보편찬위원회 고문 추대 ▲相寧(아산 온정면 참판공 문중)보훈처 근무(97년도행정고시 합격)▲仲茂(참판공문중)인사차 ▲丙鎭(대사간 문중)▲光茂(종인)총회 인사차 방문▲茂錫(전 강제유

사)대중회계적 10년간 회계사무전담과 총재관리의 공로로 공로에 전달▲萬寧(대중회 부회장 顯樂亭 부원추진위원장), 昌寧(동 기획 홍보위원 欽茂(문경화수회 이사)顯樂亭 부원추진 지원차 丙珣(회장명문, ▲京寧(감찰공문중) 건교부 사무관▲청백리문중(회장:俊九)이사회개회(8:22~23)▲가평회수회(회장:丙世 · 총무:芝衡)설악면 엄소리 출차 방문 ▲泰寧(대중회 감사)대중회 편찬사업 격려차 방문(8.21) ▲ 候寧 (LG, OTIS 디자인 연구소장) 수단 확인차 내방(8.29)

결혼 ▲世茂(부회장)차남 준범군(신부 박순자 따님 서정화양)결혼(5.15)강남 터미널 예식부 바둑무도 ▲ 부고 ▲丙周(전 김포 강화문중 회장)별세('99.10.28) 중앙의료원 영안실 강화 선영에 안장 ▲王萬寧(고문) 별세('99.11.2)옥천 이원면 선영에 안장 시제 ▲健寧(78세)별세(9.27)상주 茂錫(전 강제유사), 발인 및 장지 경희대학교 병원 영안실, 충북 제천군 백오면화당리 대호지 선영

(문중 이야기)

牛峯李家 本貫 漢字表記에 대하여



牛峯이란 峯한자에 대한 표기에 대해서 '峯자로 쓰는 것이 옳으나, 아니면 峯자로 쓰느냐'를 질문해 오는 일가가 있는데 이 문제에 관하여서는 1992년도 총회에서 논의되어서 정자(正字)인 峯으로 통일하기로 한바 있었다. 다시 말하면 이에 대한 정답은 峯은 峯자의 俗字이기 때문에 틀린 것은 아니지만, 가능하면 속자보다 정자인 峯으로 쓰는 것이 옳다.

우리 집안의 관향은 우봉이다. 본관(本貫)이란 관향(貫鄉) 또는 관적(貫籍)으로 그 집안의 선조가 생장한 곳으로 시조 문경공(文景公 諱 公靖 門下侍中)께서 식음(食邑)으로 하여 살던 고향이다.

우봉은 문헌을 통해 살펴보면 행정구역의 변천과정에서 지금의 황해도 금천군 금천면은 이미 고구려 때부터 牛峯郡(우잠군) 屈狎縣의 기록을 찾을 수 있으며, 一云 牛嶺 首知衣라고 하였다가 新羅때에는 松岳郡 江陰縣에 속하면서 牛峯으로 개칭되고 고려 때에는 開城府에 속했다가 다시 平州(平山)에 속해 있었다.

조선조 때는 京畿右道에 편입되고 태종13(1413년)에 江陰縣과 함께 황해도로 편입되었다. 그후 효종3년(1652년)에 牛峯과 江陰을 합쳐 金川郡으로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金川은 金郊와 吾道川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이름으로 仁山, 石耳, 벌꿀, 잣, 철 등이 많이 나는 고장으로 이름이 나 있다. 위치상으로는 임진강 상류인 오도천변(吾道川邊) 벼랑의

절경으로 유명한 쌍봉동(雙鳳洞)은 고려왕실에서 자주 찾던 유원지이기도 했다.

우봉을 본관으로 한 성씨는 李, 崔, 黃, 太, 金, 朴氏 등의 집안이 있는데 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이 고장 인물로는 李子晟(의월공 우봉인), 李吉培(황해도 관찰사 우봉인)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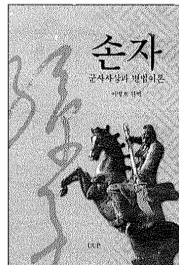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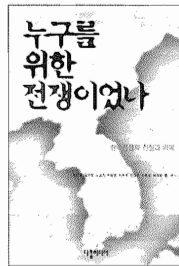
牛峯 즉, 금천군은 황해도 동남단에 위치하고, 북쪽으로는 신계군, 서쪽으로는 평산군, 동쪽으로는 강원도 이천군과 철원군, 남쪽으로는 경기도 연천군, 장단군, 개풍군 등과 경계하고 있다. 그러니까 현재는 휴전선 이북 지역이다. 京義線의 역명으로는 금교역(金郊驛)으로 서울쪽에서는 토성역과 신막역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역이다.

여기서 牛峯이란 峯한자에 대한 표기에 대해서 '峯자로 쓰는 것이 옳으나 아니면 峯자로 쓰느냐'를 질문해 오는 일가가 있는데 이 문제에 관하여서는 1992년도 총회에서 논의되어서 정자(正字)인 峯으로 통일하기로 한바 있었다. 다시 말하면 이에 대한

정답은 峯은 峯자의 俗字이기 때문에 틀린 것은 아니나 가능하면 속자보다 정자인 峯으로 쓰는 것이 옳다.

참고: (峯(大漢和辭典 諸稿 轍次 著 大修館書店 卷四 250쪽 參照)의 속자(正字通) 峯(俗峯字)

신간안내



小路

- 아버지께 -

相 範

숲 속의 작은 길로 그는 가고 지금은 없다.
이념의 아득한 숲 길 피붙이도 떠나간 길
숲길로
숲이 되어 앉아
보이잖는 먼먼 길.

셈도 아닌 더군다나 헤아릴 수도 없는 길
사십 몇 년 그 숲 속길은 자꾸 떨어 가지를 치고
지금은
미로가 된 반세기
무덤 저쪽 눈을 준다.

- 이상범 대표시집에서 -

【편집자주】 李相範 · 1935년 음성 출생(감람공 문중) · 이상범 대표시집 『별』의 시조집 14권 출간 · 한국 문인협회 시조분과 회장 · 한국시조인협회장 역임 · 펜클럽 한국본부 이사(현)

누구를 위한 전쟁이었나

李丙泰 외 공저
-한국전쟁의 진실과 의미-

6·25 발발 50주년을 맞아 학계 전공학자들이 그 실상과 경과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정리한 국민필독서로 발간하였다. 주요 목차를 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사에서의 한국전쟁, 주어진 해방, 그리고 분단, 예견되었던 남침, 적처하여 서울, 최후의 방어선, 낙동강 전선, 계산관 도박, 인천상륙작전, 북

손자

李丙鎬 역음
-군자사상과 병법이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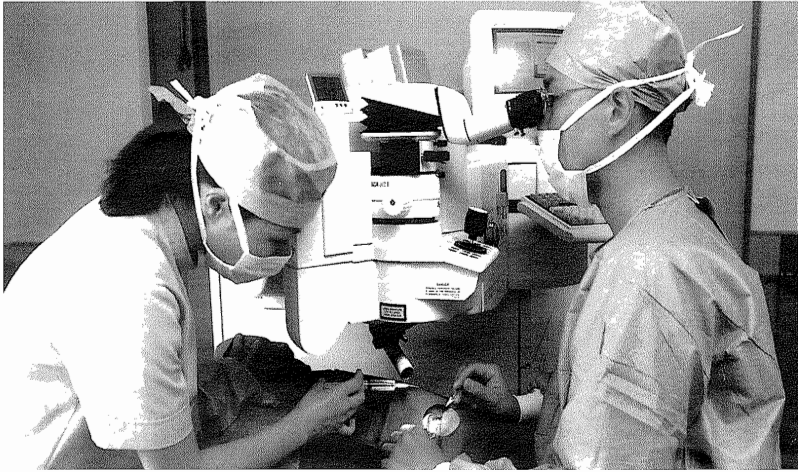
저자는 현재 육군사관학교 외국어학과 중국어 교수로서 육군사관학교와 서울대학교 중국문학부를 나온 후 대만 동오대학교 중국문학연구소에서 문학박사를 받았다. 저자는 손자병법을 지혜의 책이라고 말하고 있다.

다양한 환경변화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유리한 조건과 상황을 계속 만들어

G 밝은안과

종로점 : 서울시 종로구 종로 2가 71~2(파고다 공원 네거리 건너편) 종로회관 3층 02)735-3121-3
강남점 :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젤리리아 백화점 건너편) 02)516-6363-5

간편하고 안전한 라식수술로 밝은 눈을 되찾아 드립니다.



밝은 안과는 라식수술을 성공적으로 받을 수 있는 3가지 조건을 갖춰 안심하고 수술 받으실 수 있습니다.

- 1. 라식수술 경험이 풍부한 숙련된 의료진이 수술합니다.**
성공적인 라식수술의 첫번째 조건은 라식수술의 경험이 풍부한 의사가 있는 병원이어야 합니다. 수술경험이 풍부해야 수술을 할 수 있는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으며, 발생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밝은안과의 황우식 원장은 연세대 의대를 졸업, 건양 의과대학 임상교수를 역임하였으며, 예시여, 라식수술을 수년간 연구/시술하여 풍부한 라식수술 경험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철저히 예방,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 2. 최신행의 라식수술 기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라식수술의 두번째 조건은 라식수술 장비의 정확성과 안전성으로, 최신행의 장비일수록 연마의 정확성과 안전성이 뛰어나 원하는 시력교정치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밝은안과에서는 미국FDA의 공인을 받은 최신행의 VISX STAR S2를 보유, 수술후 자연스러운 각막 표현과 근시 및 난시를 보다 정확하게 교정할 수 있습니다.
- 3. 철저한 사전검사와 상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식수술후 원하는 시력을 얻으려면 철저한 사전검사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수술전 사전검사가 중요한 이유는 자칫 사전검사를 소홀히 하면 수술로 부적합한 사람, 예를 들어 각막 두께가 수술하기에 너무 얇거나 혹은 시신경 이상이 있는 경우, 백내장이 진행중인 사람등까지 수술을 받아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수술전 사전검사는 각막 두께 검사, 안전검사, 자동굴절 만곡도검사, 세극등 현미경 검사, 각막지형도 검사 등이 있는데 밝은안과에서도 철저한 사전검사로 라식수술에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수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검사후 충분한 상담을 통해 수술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 인터넷 홈페이지 : <http://www.bgeye.co.kr>